

신라불교에 있어서의 용신사상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The Naga Thoughts of Silla Buddhism

저자 (Authors)	김영태 Yeong Tae Kim
출처 (Source)	불교학보 11 , 1974.12, 123-154(32 pages) BUL GYO HAK BO 11 , 1974.12, 123-154(32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Institute for Buddhist Cul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92959
APA Style	김영태 (1974). 신라불교에 있어서의 용신사상. 불교학보, 11, 123-154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2/04 11:24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新羅佛敎에 있어서의 龍神思想

~ 三國遺事를 中心으로 ~

金 煥 泰

차 례

- | | |
|-----------------------|---------------|
| 1. 三國遺事に 있는 龍의 說話 | (3) 經典 奉安 |
| (1) 遺事 全體를 통해 본 龍의 資料 | 3. 新羅 龍神의 特性 |
| (2) 佛敎的인 龍의 說話 | (1) 新羅의 佛敎龍 |
| 2. 佛典에 보이는 龍王 | (2) 崇佛 護國의 龍神 |
| (1) 歸佛 護法 | (3) 佛敎國家의 特殊性 |
| (2) 法行 護世 | |

緒 言

龍에 대해서는 東 西洋 또는 어느 地方을 막론하고 그 나름의 傳說과 그 特有的 見解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곳에 따라 경우에 따라 때에 따라서, 그 說話의 樣相과 龍의 특징 및 그에 관한 觀點같은 것에 적지 않은 차이와 나름대로의 特殊性이 있겠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龍의 全般에 걸쳐 종합적으로 考察하고 비교 검토해 보는 것도 꽤 흥미롭고 意義있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다만 三國遺事に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新羅에 있어서의 佛敎的인 龍神에 관해서만 考察하기로 하였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三國遺事에서 찾아 볼 수 있는 龍에 관한 資料들을 모두 摘出하고, 거기에서 佛敎的인 新羅의 龍神說話만을 따로 整理하여 그 대략을 보기로 하였으며, 다음에 佛敎經典에서 찾아볼 수 있는 佛敎 龍에 관해서 그 중요하고 특징적인 것을 살펴 본 뒤에, 그 다음으로 新羅 佛敎特有的 龍神思想과 그 特殊性같은 것을 究明해 보려고 한다.

1. 三國遺事に 있는 龍의 說話

(1) 遺事 全體를 통해 본 龍의 資料

三國遺事を 중심으로 하여 佛敎的인 新羅의 龍神思想을 考察하기에 앞서, 먼저 遺事に 보이는 龍 關係의 모든 記錄을 그(遺事 所載) 順序대로 대충 옮겨 본다.

① 卷第1 紀異, 北扶餘

古記云…… 天帝降于訖升骨城 乘五龍車 立都稱王. …….¹⁾

(訖升骨城에 내려 왔다는 天帝 解慕漱가 五龍車를 탔었다는 이야기)

② 同, 卷, 新羅始祖 赫居世王

是日沙梁里 闕英井邊 有雞龍現而左脇誕生童女. 一云龍現死而 剖其腹得之. …….²⁾

(新羅 始祖 赫居世王 王后 闕英이 雞龍으로부터 誕生하였다는 것.)

③ 同, 第4 脫解王

我本龍城國人 我國嘗有二十八龍王 從人胎而生. ……便有赤龍護缸而至此矣.³⁾

(昔脫解王이 自身の 本國이 龍城國으로서 28龍王이 사람에게서 나서 왕이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말한 것이며, 또 그가 新羅로 올 때 赤龍이 배를 옹호하여 왔다는 이야기)

④ 卷2, 文虎王 法敏

角千金天尊曰 近有明朗法師 入龍宮傳秘法以來…….⁴⁾

王平時常謂智義法師曰 朕身後願爲護國大龍 崇奉佛法 守護邦家. …….

(文武王이 平時에 늘 智義法師에게 護國의 大龍이 되겠다고 말하였다는 것)

⑤ 同, 萬波息笛

寺中記云, 文武王欲鎮倭兵 故始創此寺 未畢而崩 爲海龍. 其子神文立 開羅二年 畢排. 金堂砌下東開一穴 乃龍之入寺旋繞之備. ……後見龍現形處 名利見臺.⁵⁾

(文武王이 倭兵을 鎮壓하기 위하여 이 感恩寺를 짓기 시작하였으나 완성을 못보고 돌아가 海龍이 되며, 그 아들 神文王이 이 절을 완성하고 金堂 섬돌 아래에다 동쪽 바다를 향해서 一穴을 파고 文武王이 化하였다는 龍이 들어와 있겠끔 하였다는 것이며, 그 뒤 龍이 나타나 보인 곳을 利見臺라고 하였다는 것.)

……曰聖考今爲海龍 鎮護三韓, …欲出城之寶. …有龍奉黑玉帶來獻, ……山與龍忽隱不現. …太子…徐察奏曰, 此玉帶諸窠皆眞龍也…即成龍上天 其地成淵 因號龍淵.

(文武王이 돌아가신 뒤에 化現했다는 海龍이 神文王 때에 護國의 神寶인 萬波息笛을 내놓았다는 說話)

⑥ 同, 水路夫人

海龍忽攬夫人入海, ……龍奉夫人出海獻之…….

(水路夫人이 海龍에게 잡혀 바다속으로 들어가버리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면서 海岸을 막대기로 치게하니, 龍이 도로 夫人을 내놓았다는 說話)

1) 北扶餘 解慕漱에 관한 것으로 崔南善 編, 新訂三國遺事 (p.39)에 있다.

2) 이것을,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 1, 始祖 赫居世王의 5年 春正月 條에는, '龍見於闕英井 右脇誕生女兒'로 하여 있다.

3) 同 脫解王에 대해서 遺事의 說話와 그 내용이 비슷하면서도, 史記의 新羅本紀 脫解尼師今 條에는 이와 같은 龍의 이야기는 없다.

4) 뒤에 나올 卷5 神呪 6, 明朗神印 條와 같은 내용임.

5) 이것은 '萬波息笛' 條의 本文이 아니고, 그 첫머리 感恩寺 創建의 事實일에다가 附記한 分註의 內容이다.

⑦ 同, 元聖大王

王即位十一年乙亥, ……一日有二女進內庭 奏曰, 妾等乃東池青池二龍之妻也 唐使將河西國人而來 呪我夫二龍及芬皇寺井等三龍 變爲小魚 筒貯而歸 願陛下勅二人 留我夫等護國龍也. …….⁶⁾

(元聖王 11년에 唐使가 新羅 서울에 와서 한달을 머물다 간 일이 있었는데, 그 때 唐使를 따라 왔던 河西國人 두 사람이 돌아가면서 東池와 青池 및 芬皇寺井의 3 護國龍을 呪術로 小魚가 되게하여 筒에 담아 가져 가려는 것을, 그 妻龍들의 告發에 의하여 도로 찾았다는 이야기)

⑧ 同, 處容郎 望海寺

第四十九 憲康大王之代……於是大王遊開雲浦 王將還駕 晝歇於汀邊……日官奏云, 此東海龍所變也 宜行勝事以解之. 於是勅有司爲龍朔佛寺近境 施令已出 雲開霧散 因名開雲浦. 東海龍喜…….⁷⁾

(憲康왕이 開雲浦(鶴城西南 지금의 蔚山)에 놀이를 갔다가 돌아 오려는 길에 홀연히 雲霧가 짙게 끼어 길을 잃게 되었을 때 “이 것은 東海龍의 짓인데 좋은 일(勝事)을 하시면 곧 풀리게 될 것입니다.”라는 日宮의 말을 듣고, 王이 이 근방에 佛寺를 짓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곧 雲霧가 개였으며, 東海龍이 기뻐하여 7子를 거느리고 나타나 獻舞奏樂으로 王의 德을 讚仰하였으며, 一子(處容)를 바쳐 王政을 補佐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 뒤 王이 勝地를 가려서 龍을 위해 절을 지은 것이 望海寺(또는 新房寺)라고 하였다는 竊話)

⑨ 同, 眞聖女王 居施知

……忽有老人 從池而出 謂曰, 我是西海若……沙彌果來 誦呪如前 欲取老龍肝……老人以其女 變作一枝花 納之懷中 仍命二龍 捧居施知及使舡……唐人見新羅舡有二龍負之….

(眞聖女王代, 唐으로 가는 使臣이 탄 배가 鶴島(骨大島)를 지날 무렵에 바람과 물결이 크게 일어서 갈 수가 없었는데, ‘섬에 神池가 있어서 祭를 지내면 漚鬪을 것’이라는 卜人의 말대로 祭를 지냈더니, 그 날 밤 꿈에 老人 한 분이 나타나서 ‘왓 잘 쓰는 사람 하나가 이 섬에 내려 두면 漚鬪이 편안할 것’이라고 하므로, 마침 使臣一行에는 弓士 50명이 隨行하고 있었는데 서로 의논한 끝에 결국 居施知라는 軍士가 남게 되었으며, 이 居施知는 西海龍의 請을 받아들여 沙彌로 화해서 陀羅尼(呪文)을 외워 龍들을 꼼짝못하게 하고는 龍의 肝腸을 꺼내어 먹는 늙은 여우를 쓰아 죽이고, 老龍으로 부터 一枝花로 變化를 시킨 龍女를 받아 두 龍의 보호를 받으면서 무사히 唐나라에 다녀와서 龍女와 同居하였다는 說話)

6) 이 護國龍관계의 事項에서 東池, 青池 밑에 다음과 같은 分註가 있다. ‘青池即東泉寺之泉也. 寺記云, 泉乃東海龍往來聽法之地. 寺乃眞平王所造 五百聖衆 五層塔 并納田民焉’ 즉 青池란 東泉寺의 泉을 가리킨 것인데, 寺記에 의하면 이 샘은 東海의 龍이 往來하면서 說法을 듣는 곳이며, 이 절은 眞平王이 지어서 五百聖衆과 五層塔 및 田民을 施納하였다는 것이다.

7) 이 處容郎 望海寺條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學者들이 여러 角度에서 論及하고 問題視하였는데, 물론 龍子 處容이나 處容歌, 處容舞 및 僻邪進慶 등의 事實들이 問題性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는 못하겠지만, 여기서는 단지 望海寺라는 寺刹의 創建緣起說話로만 보고자 한다.

⑩ 同, 南扶餘 前百濟

又泗泚河邊有一崑 蘇定方嘗坐此上 釣魚龍而出 故崑上有龍蹠之跡 因名龍崑。

(唐將 蘇定方이 이 바위 위에 앉아서 魚龍을 낚았으므로 바위 위에는 龍이 뚫어앉았던 자국이 있다는, 泗泚河 가의 龍岩에 얽힌 傳說)

⑪ 同, 武王

第三十武王 名璋, 母寡居 築室於京師南池邊 池龍交通而生。

(百濟 武王의 어머니가 池龍과 交通하여 그를 낳았다는 전설)

⑫ 卷3 興法3, 寶藏奉老 普德移庵

道士等呪勅南河龍 加築爲滿月城 因名龍堰城.⁸⁾

(도사들이 南河의 龍을 呪術로 부려서 城을 쌓았기 때문에 龍堰城이라 했다는 것.)

⑬ 同卷 塔像 4, 迦葉佛宴坐石

眞興王即位十四·開國三年癸酉二月 築新宮於月城東 有皇龍現其地 王疑之 改爲皇龍寺.⁹⁾

(眞興王이 그 14年 2월에 月城의 東에다 新宮을 建築하려고 하였는데, 그 땅에 黃龍이 나타났으므로 宮을 고쳐 절로 만들어 皇龍寺로 하였다는 것.)

⑭ 同, 皇龍寺丈六

新羅第二十四眞興王 即位十四年癸酉二月 將築紫宮於龍宮南 有黃龍現其地 乃改置爲佛寺 號皇龍寺.¹⁰⁾

(위와 같은 內容임)

⑮ 同, 皇龍寺九層塔

……太和池邊 忽有神人出問, ……神曰, 皇龍寺護法龍 是吾長子 受梵王之命 來護是寺. ……更爲我於京畿南岸置一精廬 共資予福 予亦報之德矣…….¹¹⁾

(慈藏法師가 唐에 들어가 五臺山에서 文殊眞身을 親見한 뒤 太和池를 지나게 되었을 때 홀연히 한 神人이 나타났는데, 그 神人(中國太和池 龍神)이 新羅國家의 安泰를 염려하여 묻는 慈藏에게 ‘皇龍寺의 護法龍은 나의 長子인데 梵天王의 命을 받아 그 절을 지키고 있으니, 그대가 新羅로 돌아가거든 그 절안에 九層塔을 세우도록하라.……그리고 나를 위해서 한 精舍를 짓고 내 福이 되게 해준다면 나도 그 보답을 하겠다.’하고 玉을 바치는 神인 보이지 않았는데, 慈藏이 그 뒤 귀국하여 皇龍寺에 九層塔을 세우고 太和池 龍神의 부탁을 잊지 않고 慶州 남쪽에 太和寺를 세웠다는 것이다.)

8) 高句麗 末에 唐으로 부터 道教를 들여 왔는데, 특히 寶藏王 때에는 지나치게 道教를 優待하여 佛敎를 밀치고 道士들의 得勢가 극에 달했을 때의 이야기이다.

9) 三國史記 新羅本紀 4. 眞興王 14年 條를 引用한 것으로, ‘皇龍現其地’의 皇龍은 黃龍으로 해야 옳을 것이다.

10) 앞의 경우와 꼭 같은 內容의 皇龍寺 創建緣起 事實인데, 新宮을 紫宮이라한 것과 月城東을 龍宮南이라한 점이 조금 다르다.

11) 이 說話는 皇龍寺 九層塔을 세우게 된 緣起說話이지만, 앞서 보았던 皇龍寺의 黃龍을 더욱 明確하게 해준다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皇龍寺의 黃龍이 護法龍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보게 된다.

⑯ 同, 輿輪寺壁畫普賢

帝釋降于寺之左經樓 留旬日……南池魚龍喜躍跳擲。

(第54代 景明王 때에 帝釋天이 輿輪寺의 經樓에 내려와 旬日을 머물었는데, 그 때 殿塔 및 草樹土石이 모두 異香을 發하고 五色구름이 靄를 덮었으며, 南池의 魚龍이 기뻐 날뛰었다는 것으로 꼭 龍에 관한 이야기만으로는 보기 어렵다.)

⑰ 同, 前後所將舍利

昔普耀禪師 始求大藏於南越 泊旋返次 海風忽起 扁舟出沒於波間 師即言曰 意者神龍欲留經耶 遂祝願乃誠 兼奉龍歸焉 於是風波息.¹²⁾……寺有龍王堂 頗多靈異 乃當時隨經而來止者也。

(海龍王寺 開山祖인 新羅末의 普耀禪師가 南越에서 大藏經을 구해 가지고 뱃길로 돌아오다가 大藏經을 탐내는 神龍으로 인해서 격심한 풍랑을 만났으나 禪師의 祝願에 의하여 도리어 神龍까지 데리고 순탄한 뱃길로 돌아왔다는 것이며, 海龍王寺에는 그 神龍을 모신 龍王堂이 있는데 매우 靈異함이 많다는 것이다.)

⑱ 同,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

齋戒七日 浮座具晨水上 龍天八部侍從 引入峒內……東海龍亦獻如意寶珠一顆……。

(唐나라에 갔다가 돌아온 義湘法師가 觀音眞身의 住處라는 洛山의 海邊窟內에 들어가 眞身을 親見하고자 7日을 齋戒하였는데, 龍天八部衆이 그를 모시고 觀音峒안으로 인도하였으며, 여기서 法師가 空中으로부터 水精念珠를 받고 물러나오면서 東海 龍으로 부터 如意寶珠 一顆를 받았다는 것이다.)

⑲ 同, 魚山佛影

……首露王 當此時 境內有玉池 池有毒龍焉, 萬魚山有五羅刹女 往來交通 故時降電雨歷四年 五穀不成 王呪禁不能 稽首請佛法 然後羅刹女受五戒而無後害 故東海魚龍遂化爲滿洞之石…….¹³⁾

(首露王 때에 그 境內에 玉池가 있었는데 거기에 毒龍이 살면서 萬魚山의 다섯 羅刹女와 往來交通하며 電雨를 내리서 4年동안이나 농사를 망쳤으므로 首露王이 呪力으로 毒害를 막으려 하였으나 되지 않았으므로, 佛陀에게 說法을 懇請하여 羅刹女가 五戒를 받고난 뒤에야 못된 장난이 없어졌으며, 그 때문에 東海의 魚龍이 변화하여 洞谷의 돌이 되었으므로 돌들이 모두 鍾磬소리를 낸다는 것이다.)

⑳ 同, 臺山五萬眞身

太和池龍 現身請齋 供養七日.¹⁴⁾

12) 이 '前後所將舍利'條는 撰者가 많은 資料들을 묶어 하나의 項目으로 엮어 만든 것인데, 이 普耀禪師 神龍에 관한 부분은 '漢南管記 彭祖湫'의 跋文을 引用한 것이다. 이어서 '寺有龍王堂...'의 부분은 撰者의 기록이다.

13) 이 이야기는 撰者가 이어서 附記해 놓은 '觀佛三昧經' 즉 '佛說觀佛三昧海經' 卷 7에 있는, 那乾訶羅國 毒龍의 故事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은 내용이다. 바로 經에 있는 이야기 그대로를 요약해서 옮겨 놓은 것이라고 하겠다.

14) 앞의 皇龍寺九層塔條에서 본 太和池 龍神의 이야기와 같은 것이나, 여기서는 龍이 請齋하여 7日을 供養하였다고 있는데 이 사실이 앞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特異하다.

(慈藏法師가 唐에 갔을 때 文殊眞身으로 부터 法을 받고 돌아오려는데 太和池의 龍이 나타나서 齋를 請하여 7일을 供養하였다는 것이다.)

㉑ 同, 天龍寺

雞林土內……其逆水客水二源不鎮 天災則致天龍覆沒之災.¹⁵⁾

(雞林(慶州)境內에는 客水和 逆水가 있는데 그 두 水源을 鎮壓하지 않으면, 天龍이 覆沒하는 재앙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㉒ 卷4 義解5, 寶壞梨木

祖師知識(寶壤) 大國傳法來還次西海中 龍邀入宮中念經 施金羅袈裟一領 兼施一子 璃目 爲侍奉而追之. ……璃目常在寺側小潭 陰隲法化……龍撫之即穌.

(雲門寺開山祖 寶壤和尚이 中國에서 求法하고 돌아오다가 西海龍의 청으로 龍宮에 들어가 佛經을 說해주고, 龍이 주는 金羅袈裟와 龍子 璃目を 데리고 왔으며, 雲門寺를 세우고 살게 되자, 璃目は 절 옆 작은 못에 있으면서 和尚의 法化를 도왔는데, 어느 해 가뭄이 심하였을 때, 和尚의 부탁으로 비를 내리게 한 璃目이 天帝의 노염을 사서 벌을 받게 되었으므로, 和尚이 璃目を 숨겨주고 대신 들알의 배나무를 가리켜 위급을 면하게 해 주었고, 그 龍(璃目)은 자기때문에 벼락을 맞아 말라죽은 배나무를 쓰다듬으니 나무가 곧 살아났다는 說話.)

㉓ 同, 元曉不羈

亦因海龍之誘……因謂之角乘…….¹⁶⁾

(元曉가 撰한 角乘 즉 金剛三昧經疏는 海龍의 지시에 인한 것이었다는 것.)

㉔ 同, 關東楓岳鉢淵藏石記

至大淵津 忽有龍王 出獻玉袈裟 將八萬眷屬 侍往金山藏.¹⁷⁾

(眞表律師가 邊山 不思議房에서 地藏, 彌勒 兩聖으로부터 教法을 받고 金山寺를 일으키기 위하여 가는 길에, 大淵津에 이르니 홀연히 龍王이 나타나 玉袈裟를 받치고 八萬眷屬과 함께 律師를 모시고 金山藏까지 갔다는 것이다.)

㉕ 卷5 神呪6, 惠通降龍

忽有蛟龍走出……龍怨通之逐己也 來本國文仍林 害命尤毒, 是時鄭恭奉使於唐 見通而謂曰 師所逐毒龍 歸本國害甚 速去除之 乃與恭……還國而黜之, 龍又怨恭……諭龍授不殺戒 神害乃息.

(王和尚이라고도 하는 新羅의 惠通國師가 唐에 있을 때 唐 高宗의 公主를 잃게 하는 病魔였던 蛟龍을 쫓아낸 일이 있었는데, 그 龍이 惠通을 원망하여 그 분풀이로 新羅에 가서 많은 人命을 해쳤으므로, 다짐 唐에 使臣으로 갔던 鄭恭이 그 일을 알리서 惠通은 歸國하여 또 龍을 내쫓았더니, 이번에는 鄭恭을 원망하여 毒龍은 결국 鄭恭을 죽게 하고는 機張山으로 가서 熊神이 되어 慘毒이 매우심하였으므로, 國師 惠通이 龍을 說諭하여 不殺戒를 준 뒤로는 毒龍의 神害가 없어졌다는 說話)

15) 天龍寺에 얽힌 說話의 하나로 '對論三韓集'에서 引用한 것이라고 있다.

16) 여기서는 '亦因海龍之誘'라고 너무 요약해서 그 뜻을 알기에도 힘이 들지만, 그것은 '宋高僧傳' 卷4의 元曉傳에 자세히 보이는 龍王 鈐海와 金剛三昧經에 얽힌 經典流布의 緣起說話이다.

17) 朝鮮金石總覽 上, 高城鉢淵寺羅僧律師藏骨塔碑 (p.427)에도 이 事實이 있다.

有高僧明朗 入龍宮得神印……. 18)

㉔ 同, 明朗神印

將還因海龍之請 入龍宮傳秘法 施黃金千兩 潛行地下 湧出本宅井底 乃捨爲寺 以龍王所施黃金飾塔像. 19)

(明朗法師가 唐에서 求法하고 돌아오는 길에 海龍의 請으로 龍宮에 들어가 秘法을 傳하고 黃金 千兩(또는 千斤)을 받아 땅밑으로 해서 자기 本家の 우물속으로 솟아 나왔으며, 그 집을 절로 삼고 龍王에게서 받은 黃金으로 塔과 像을 장식하니, 그 광채가 매우 훌륭하였으므로 金光寺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㉕ 同 感通 7, 仙桃山聖母隨喜佛事

本朝屈弗池龍 託夢於帝 請於靈鷲山 長開藥師道場 □平海途.

(이 부분은 本 '仙桃山聖母'條의 가운데에 들어있는 分註로서, 高麗朝 때에 屈弗池의 龍이 帝王의 꿈에 나타나 靈鷲山에다 길이 藥師道場을 開設할 것을 請하였다는 이야기이다.)

이상에서 대략 遺事에 들어있는 龍에 관한 것은 거의 모두를 뽑아 본 셈이다. 이 중에서 北扶餘의 것(天帝의 乘五龍車)이 하나, 高句麗의 것(道士의 呪龍築城)이 하나, 百濟 관계(蘇定方 釣龍嶺과 武王母의 池龍交通)가 둘, 駕洛의 것(魚山佛影)이 하나, 高麗의 것이 하나이며, 그 밖에는 모두 新羅의 龍이야기가 된다.

新羅관계의 것 중에서도 閔英王后의 鷄龍과 昔脫解王關係(여기에 나오는 龍은 新羅가 아닌 龍城國의 龍이다.)는 新羅初期에 속하므로 佛敎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리고 水路夫人 이야기와 居施知的 이야기는 모두 統一後의 新羅代에 해당되므로 時代的으로는 佛敎적인 範疇에 속하지만, 그 내용으로 보아서는 佛敎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같지가 않다. 여기서는 新羅의 佛敎적인 龍神관계만을 考察하려고 하기 때문에 新羅의 다섯 가지와 新羅에서의 네 가지, 즉 모두 9件의 龍에 관한 記錄은, 全般的인 龍의 問題를 다룰 때의 다른 기회에 考察하기로 하고 本 論考에서는 제외하려고 한다. 실제에 있어서 佛敎以前 및 新羅의 龍에 관한 記錄으로는 遺事에 收錄된 것에 限해서는 크게 問題삼을 만한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혀 問題性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佛敎적인 龍에 관한 記錄보다는 그 量이나 問題性에 있어서도 저히 비교가 안될 만큼 단편적이고 內容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 중에서 水路夫人의 이야기와 居施知的 海龍說話는 佛敎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說話形態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지만, 직접적인 관련을 外形的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으므로 여기에서 제외하였으나, 新羅佛敎의 龍神을 言及하는데 적지 않은 參考가 될 것은 틀림이없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例舉되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다.

18) 이것은 惠通降龍條에 附記되어 있지만, 앞의 註(4)에서와 같이 다음의 明朗神印條의 내용과 같다.

19) 이 이야기는 바로 앞에서 본 것과 '文虎王法敏'條에서 본 것과 똑 같이 明朗의 入龍宮關係이지만, 앞의 두 경우는 神印(文豆婁)秘法の 道場開設을 위주로한 緣起說話처럼 되어 있고 여기서는 金光寺라는 절의 緣起說話 형태로 되어 있다.

(2) 佛敎의인 龍의 說話

지금까지 摘出해 본 資料를 통하여 遺事에서 볼 수 있는 龍의 관계는 그 대부분이 新羅에 관한 것이며, 특히 佛敎傳來以後의 佛敎의 影響圈에 속하는 것들임을 알 수가 있다. 앞에서 이미 그 관계 부분의 記錄만을 摘出해 보았으나, 新羅佛敎에 있어서의 龍神思想을 좀더 具體的으로 考察하기 위해서는, 우선 佛敎의인 龍에 관한 說話만을 整理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특히 이 부분의 記錄은 同一한 事實이면서도 몇 군데에서 겹쳐져 있는 것이 더러 보인다. 그러므로 앞에서 처럼 資料중심만이 아닌 事實을 중심으로한 龍의 說話를 대략 年代順으로 整理해 보려고 한다.

① 皇龍寺의 護法龍과 中國 太和池의 龍神

眞興王 14年(553) 2월에 王이 龍宮南(月城東)에 紫宮(新宮)을 지으려고 하다가 그 땅에서 黃龍이 나타났으므로 이상히 여겨 佛寺로 고쳐 짓게 되었다. 이 것이 皇龍寺를 세우게 된 緣起인데, 이 때 나타난 黃龍이 바로 護法龍이라는 것이다. 이 皇龍寺의 黃龍이 護法龍이라는 사실은 그 뒤 慈藏法師에 의하여 비로소 알려진 것이다.

慈藏이 唐으로 들어가(636) 五臺山에서 文殊眞身을 親見하여 法을 받고 내려오다가 太和池 가에서 龍神을 만났다. 龍神의 請으로 七日동안 供養을 받았는데, 그 때 龍神으로부터 新羅의 利益을 위한 護國의인 方法에 관해서 들었다. 祖國을 염려하는 慈藏에게 太和池 龍神은, “皇龍寺의 護法龍은 나의 長子인데 梵王의 명을 받아 그 절에 가서 지키고 있으며, 그때가 本國으로 돌아가서 그 절안에 九層塔을 세우면 이웃 나라를 항복받고 國家가 太平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京畿의 남쪽 지방에 한 精舍를 세워 나의 福이 되게하여 준다면 나도 그 德을 보답할 것이다”고 하면서 玉을 받쳤다는 것이다. 그래서 本國으로 돌아온(643) 慈藏은 龍神의 말을 따라 皇龍寺에다 九層塔을 세웠으며, 阿曲縣 남쪽에다 大和寺 및 塔을 세워 舍利를 奉安하여 中國 太和池 龍神의 부탁을 들어주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眞興王 14년에 나타났던 黃龍이 護法龍이며, 또 中國 太和池 龍의 長子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說話는 이미 앞에서 본바와 같이, 三國史記 眞興王 14年條와 遺事의 ‘迦葉佛安坐石’·‘皇龍寺 丈六’·‘皇龍寺 九層塔’·‘臺山五萬眞身’·‘慈藏定律’²⁰⁾등 條에 의하여 볼 수 있다.)

② 西海龍王 鈴海와 金剛三昧經

이것은 앞에서 摘出한 遺事의 ‘元曉不羈’條에 있는 “亦因海龍之誘……”에 관한 說話

20) 遺事 卷4 義解 5, 慈藏定律 條는 遺事에서는 慈藏本傳이 되는 셈인데, 여기에는 龍神을 만났다는 것이 보이지 않으므로 앞의 摘出引用에서는 빠져 있지만, 慈藏이 淸涼山(五臺山)에서 文殊眞身을 만나고 北臺를 내려와 太和池를 거쳐서 京師로 들어 갔다고 하여, 龍神을 만났다는 앞의 諸條事例들을 인정하면서 생략한 것처럼 보이므로 참고 사항으로는 삼을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다. 註(16)에서도 言及되어 있지만 이 ‘海龍之誘’라는 단 한마디 만으로는 도저히 그 全貌를 알 수가 없는데, 이 內容을 자세하게 전해주고 있는 文獻이 있으므로 그것을 여기에 옮겨서 ‘亦因海龍之誘’의 완전한 이야기를 보기로 하겠다.

新羅 王의 夫人이 몹쓸 증기로 매우 앓게 되었는데 아무리 약을 쓰고 어떠한 醫術로도 효험이 없었다. 그래서 王과 王子와 臣屬들이 名山大川과 靈祠를 찾아가서 祈禱까지 하였는데, 어떤 巫覡이 말하기를 “사람을 他國으로 보내서 약을 구해와야 그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 말을 듣고 王은 使人을 唐나라로 보내어 醫術(藥)을 구해 오도록 하였다. 王命을 받은 使臣이 탄 배가 바다 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홀연히 한 늙은이가 나타나 물결 속에서 배 위로 뛰어올라 使人을 데리고 바다로 들어갔다. 바다 속에는 매우 莊嚴하고 華麗한 宮殿이 있었는데 바로 龍宮이었다. 이 宮殿에는 鈐海라는 龍王이 있었는데 그 龍王은 使人을 보고, “그대 나라의 王后는 青帝의 셋째 딸이다. 우리 宮中에는 金剛三昧經이 있는데, 이 經은 本覺과 始覺이 圓通한 菩薩行을 보이고 있는 經이며, 지금 王后의 병은 훌륭한 佛事因緣을 짓기 위한 것이므로 이 經을 줄터이니 가지고 가서 그대 나라에 流布시키도록 하라.”하고는 整理되지 않은 散經을 使人에게 내 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龍王은 “이 經이 바다를 건너는 중에 魔事에 걸릴지도 모르니 잘 간직해야 한다.”고 하면서 칼로 使人의 장딴지를 찢고는 그 속에다 經을 넣어 봉하고 약을 바르니 장딴지가 감쪽 같았다. 그리고는 또 “이 經은 大安聖者가 차례대로 정리하여 앞뒤가 맞는 經典으로 編次하여야 하며, 그런 다음에 元曉法師에게 청하여 疏를 지어서 講說하게 하면 王后의 병환은 틀림없이 나을 것이다. 이 보다 더한 약은 있을 수 없다.”하였다. 龍王이 海面까지 내려다 주어서 使人은 배를 타고 귀국하여, 王으로 하여금 龍王이 시키는 대로 하게 하였다. 그래서 金剛三昧經이 新羅에 비로소 나타나게 되었고, 元曉에 의하여 角乘이라고도 불리우는 金剛三昧經疏(論)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²¹⁾

이러한 龍王 鈐海의 說話가 遺事에는 자세히 보이고 있지 않지만, 전연 취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亦因海龍之誘’라 하여 그 重複을 피해서 생략하였을 뿐이므로 여기에 그 全貌를 옮겨 본 것이다. 遺事에서 이 內容을 생략한 이유로는 “具載唐傳 與行狀. 不可具載.” 즉 唐傳²²⁾과 行狀²³⁾에 자세히 보이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자세히 실지

21) 宋高僧傳 卷4 義解篇 2, 釋元曉傳(大正新修大藏經 第50卷 p. 730).

22) 여기서 ‘唐傳’이라고한 것은 唐人이 쓴 元曉傳이란 뜻으로 위에서 본 宋高僧傳에 있는 元曉傳을 가리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宋高僧傳에서는 ‘載唐新羅國黃龍寺 元曉傳 云이라 있으므로 즉 唐 新羅國黃龍寺 元曉傳이 따로 있고 거기에 있는 것을 引用한 것이 宋高僧傳에 실린 釋元曉傳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遺事에서 唐傳이라고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3) ‘元曉法師 行狀’(現存하지 않음)을 가리킨 것이다.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③ 明朗의 龍宮傳法

慈藏法師의 甥姪되는 明朗法師가 唐에 들어가 學道하고 돌아오는 길에 西海龍의 淸으로 龍宮에 들어가서, 秘法을 傳²⁴⁾하고 黃金 千兩(또는 千斤)을 시주받았다. 그는 新羅로 돌아올 때 龍宮에서 바로 땅 밑으로 潛行해서 자기 本家の 우물 밑바닥으로 솟아 올랐다는 것이다. 그 집을 절로 삼고는 龍王에게서 받은 黃金으로 寺塔과 佛像을 장식 하니 그 빛이 매우 훌륭했으므로, 절 이름을 金光寺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실제 龍에 관한 이야기가 보이는 것은 이것 뿐이지만, 이것은 龍의 說話가 중심이 아니고 사실은 四天王寺 創建과 文豆婁道場 開設 및 金光寺 創寺가 중심이 된 緣起說話인 것이다. 즉 文武王 때 唐이 大軍을 일으켜 新羅를 칠려고 하는 위급한 사실을 마침 唐에 있던 義湘法師가 급히 돌아와 알리자, 朝廷에서는 어쩔바를 몰라 대책을 강구하다가 끝내는 明朗法師에게 이 일을 일임하였던 것이다. 그 때 朝廷에서 위급한 國防大事를 明朗法師에게 맡긴 이유가 바로 龍宮에 들어가 秘法을 傳해왔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갑자기 兵力으로는 大唐의 軍勢를 도저히 막을 수가 없으므로, 龍宮에까지 往來하였다는 神僧의 秘法을 청해서 이용할 밖에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明朗法師는 곧 四天王寺를(갑자기 創建할 수가 없으므로)假構하고 거기에 道場을 開設하여 文豆婁秘密法을 행하여 唐軍의 來侵을 물리쳤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龍王의 施金에 의해서 金光寺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④ 義湘과 護法龍

義湘이 觀音眞身을 親見하기 위하여 洛山 海邊의 聖窟로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龍天八部の 侍從을 받으면서 들어갔고, 窟內 空中에서 水精念珠 一貫을 받고 나오면서 東海龍으로부터 如意珠 한알을 받았다는 說話를 앞에서 대강 보았다. 그런데 여기에 龍天八部라고 하는 것은 佛敎에서 말하는 天龍八部 즉 八部神衆 또는 護法の 神衆을 뜻하는 것이므로, 龍만을 따로 빼어 볼 수 없는 八部衆 모두를 通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如意珠를 받쳤다는 東海龍만을 (물론 이 龍도 八部衆의 하나에 속하긴 하지만)이야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보이는 이 龍은 義湘에게 如意珠를 받쳤다는 것 뿐으로 아무런 다른 內容은 없다. 다만 佛法을 守護하는 護

24) 앞에서 잠시 보았지만 이 '龍宮傳法'이 法을 龍宮에 傳한 것인지, 龍宮에서 法을 얻은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文虎王法敏'條의 '明朗法師 入龍宮傳秘法以來'에서는 '龍宮에 들어가 秘法을 傳해 받고 왔다.'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며, '惠通降龍'條의 '入龍宮 得神印'에서도 龍宮에 들어가 神印(文豆婁秘法)을 얻어 왔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本(明朗神印)條의 '因海龍之請 入龍宮傳秘法施黃金千兩'에서는, 海龍이 明朗을 龍宮으로 請해서 明朗으로부터 秘法을 傳해 받았기(즉 明朗이 秘法을 傳했기)때문에 龍王이 明朗에게 黃金을 施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문제는 앞의 두(文虎王法敏 條·惠通降龍 條)경우는 文豆婁秘法을 神敎化시키려는데 證점이 있고, '明朗神印'條의 경우는 金光寺의 緣起 또는 明朗의 神異行을 證점으로 하였기 때문에, 同一한 內容이면서도 그와 같이 전연 다른 두 가지의 相反된 解釋(記錄)이 있게 되었던 것이 아니었던가 싶다.

法龍이라는 것만을 알게 할 뿐이다.

이보다도 실은 義湘에게는 또 하나의 護法龍에 얽힌 說話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浮石寺 創建緣起說話에 나오는 善妙龍의 이야기다. 이 것은 遺事에는 없는 이야기이지만 義湘法師와 護法龍에 관한 것이므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宋高僧傳²⁵⁾에 있는 善妙龍女의 說話를 대략 여기에 곁들여 옮겨 본다.

義湘이 求法코자 唐에 갔을 때, 배에서 내린 그가 어느 信士家에서 몇날을 머무는 동안에 善妙라는 그 집 딸이 그를 사모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릿다운 처녀 善妙는 義湘의 人格과 道心에 감복되어, 生生 世世에 義湘스님이 佛道를 成就할 때까지 스님의 學業에 필요한 모든 資緣을 供給하는 檀越이 되겠다는 大願을 세웠다. 그 뒤 本國으로 돌아 가게 된 義湘이 그 동안 빠짐없이 資緣을 대어준 善妙 집에 들러 감사하다는 인사만 하고는 곧 뱃길이 급해서 선장가로 향했다. 그 때 善妙는 언젠가 本國으로 돌아갈 義湘을 위하여, 法服과 什器 등을 장만하여 상자에다 넣어 두었었는데, 미처 전해줄 사이도 없이 떠나 버렸으므로 뒤미처 그 상자를 운반하여 바다가로 나가니, 어느새 배는 저만치 멀어져 가고 있었다. 그래서 善妙는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法師를 供養한다면(내 마음에 거짓이 없다면) 이 상자가 저 배위에 전해질 것이다.” 하고는 던지니 과연 상자가 배안에 떨어졌다. 그것을 본 善妙는 다시 誓頭하기를 “원컨대 이 몸이 大龍으로 되어서 저 배를 무사히 갈 수 있게 하고, 그 나라에 가서는 스님의 弘法(佛事)을 도와 드리겠다.” 하고는 바다로 뛰어 들어 龍이 되었으며, 그 龍이 義湘의 뱃길을 편안하게 한 것은 물론이고, 新羅에 돌아온 義湘이 法化를 퍼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스스로 큰 浮石이 되어 義湘이 뜻하는 大刹 浮石寺를 짓는데 절대적인 힘이 되었다는 것이다. 지금도 浮石寺에는 浮石과 石龍이 있어서 善妙護法龍의 說話를 立證해 주고 있다.

⑤ 文武王의 護國龍

‘文虎王法敏’條와 바로 그 다음의 ‘萬波息笛’條에 있는 바를 합해서 文武王의 護國龍에 대한 하나의 說話를 볼 수가 있다. 三國史記에도 이 說話를 뒷바침해 주는 記錄이 보인다.²⁶⁾

文武王은 평소에 늘 智義法師에게 말하기를, “朕은 죽은 뒤에 護國의 大龍이 되어 佛法을 崇奉하고 國家를 守護하겠다.”고 하였으므로, 智義法師는 “龍은 畜生인데 왜 畜生의 報를 받으려고 하십니까?”하니, 王은 “나는 榮華를 오래 누렸으므로 世間이 싫고, 나쁜 業報인 畜生이 되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한 文武王이 자기의 死後에 佛敎式으로 火葬하고 그 遺骨을 東海入口중의 大岩上에 安藏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므로, 그렇게 하였는데 그 뒤 과연 文武王은 龍이 되어

25) 高宋僧傳 卷4, 釋義湘傳. (大正新修藏經 第50卷 p. 729).

26) 三國史記 新羅本紀 7, 文武王 21年 條. ‘羣臣以遺言 葬東海口大石上 俗傳 王化爲龍 仍指其石爲大王石’

나타났으며, 그 龍이 나타나 보였던 곳을 利見臺라 하고 藏骨한 곳을 大王岩이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文武王이 돌아간 그 이듬해, 즉 神文王 2年(682)에, 東海邊(大王岩 건너 보이는 기슭)에다 感恩寺를 세웠다. 이 感恩寺는 본래 文武王이 倭兵을 鎮護하기 위하여 세우기 시작했던 절인데 완성을 보지 못하고 돌아갔으므로, 그 아들 神文王이 뒤를 이어 이 절을 완성시키고는, 金堂 섬돌밑에다 龍(文武王이 化現했다는 龍)이 들어와 쉴 수 있는 一穴을 東向으로 파놓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해(神文王 2年) 5月 초하루에 東海 海官으로부터 “東海 가운데 조그만 山이 하나 感恩寺를 향해서 떠와서는 물결을 따라 오락가락 한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神文王이 곧 이상이 여겨 日官에게 점을 치게 하였더니, “聖考께서 지금 海龍이 되셔서 三韓(즉 新羅國)을 鎮護하시는데, 三十三天의 一子이던 金庾信公과 二聖이 同德으로 國家守護의 寶物을 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陛下께서 海邊으로 직접 行幸하신다면 반드시 無價의 大寶를 얻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므로, 王은 기뻐하여 그 달 7일에 利見臺로 가서 그 山을 바라보고, 사람을 시켜서 山勢를 자세히 살펴 오게 하였다. 그 산 모양은 龜頭와 같고 그 위에는 대나무 하나가 나 있는데 낮에는 둘로 되었다가 밤에는 하나로 된다는 것이다. 그 날밤 王은 感恩寺에서 잤으며 그 이튿날부터 7일동안을 天地가 진동하고 風雨가 쳐서 캄캄하므로, 16일에야 맑게 개어 王은 바다로 해서 그 山으로 들어가니 한 龍이 黑玉帶를 받치면서 영접을 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王은 龍과 말을 나누고 “王께서 이 대나무를 가져가서 笛을 만들어 불면 天下가 和平할 것입니다. 지금 王考께서 海中의 大龍이 되시고 庾信이 天神이 되어 이들 二聖이 同心으로 이 無價의 大寶를 내어서 나로 하여금 王께 바치도록한 것입니다.”라고 하는 龍의 말을 듣고, 그 사례를 표한 뒤 대나무를 베어 바다를 나오니 山과 龍은 사라져 버렸다. 그 이튿날 王이 대궐로 돌아 오는 도중에 마침 대궐에서 마중 나온 太子²⁷⁾와 만나게 되었는데, 太子는 龍이 받친 黑玉帶를 관찰하다가 “이 玉帶의 구멍(窠)들이 모두 眞龍입니다.”하고는 玉帶의 한 窠를 떼어 시냇물에 담그니 곧 龍이 되어 하늘로 올라 갔으며, 龍이 된 그 자리는 深淵을 이루었는데 龍淵이라고 부른다.

王이 돌아와 그 대나무로 笛을 만든 것이 萬波息笛이며, 이것을 불면 賊兵은 물러가고 疾病이 낫게되며, 가뭄에는 비가 오고 장마에는 맑아져서 國泰民安해진다는 것이다.

27) 遺事에는 ‘太子 理恭 即 孝昭大王’이라고 明記하여 있는데, 사실 神文王의 太子는 理恭(洪)으로서 나중에 孝昭王이 되었던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孝昭王의 生母되는 神穆王后(一吉浪 金欽運 女)는 神文王 3년에 王后가 되었으며 元子인 太子 理恭은 神文王 7년에 태어났다. (史記 神文王 3年 및 7年條) 그러므로 神文王 2年인 이 때는 아직 太子의 出生은 고사하고 그 母인 神穆王后가 父王 神文王과 結婚도 하기 전 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拙論 ‘萬波息笛說話攷’(東國大學校 論文集 第11輯 p.45, 註4)에서도 밝힌 바가 있다.

⑥ 惠通과 毒龍

이 說話는 이미 앞에서 어느 정도 그 대략을 보았으므로 여기에 더 敷衍할 것은 없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나오는 毒龍은 唐 皇室의 公主를 병들게 했던 唐의 蛟龍으로서 惠通에게 쫓겨난 것에 앙심을 품고 惠通의 本國인 新羅로 와서 惡毒한 짓으로 앙갚음을 하였던 惡質的인 外來의 龍이었다. 그러므로 이 毒龍은 新羅의 龍이 아니다.

⑦ 眞表를 侍衛한 龍王

眞表律師에게 玉袈裟를 받치고 八萬眷屬과 함께 侍衛하여 金山寺로 갔다는 龍王에 대해서도 앞에서 본 것외에는 더 자세한 것이 없다.

⑧ 元聖王 때의 護國三龍

元聖王의 即位 11年(795) 乙亥에 唐의 使臣이 왔다가 한달쯤 머물다 간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에 두 女人이 內庭에 나타나서 王께 아뢰기를,

저희들은 東池 龍과 靑池 龍의 妻이운데, 唐의 使臣이 데리고온 河西國人 두 사람이 저희들 두 夫龍과 芬皇寺 井의 龍 등 세龍을 呪術로서 小魚로 만들어 가지고 筒안에 넣어 갔읍니다. 陛下께서는 저희 남편들 護國龍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였다.

이에 王은 唐使의 뒤를 쫓아가 河陽館에서 그들을 만나 친히 享宴을 베풀어 주고는 河西人에게, “너희들이 왜 우리의 세龍을 잡아 가지고 가느냐?”하고 호통을 치니 세 고기를 내어줌으로 가지고 와서 각각 세곳에다 넣어 주었다. 그러자 모두 물이 한길(丈餘)이나 솟구치면서 기뻐 날뛰며 우물(못)안으로 들어 갔다는 것이다.

특히 靑池는 東泉寺의 泉인데, 寺記에 의하면 이 泉은 東海의 龍이 往來하면서 說法을 듣는 곳이라고 전한다.

그리고 本(遺事의 元聖大王)條에는 元聖王이 北川神에게 몰래 祈祀해서 王이 되었다고도 있다.

⑨ 東海龍과 望海寺創建

여기서의 東海龍 說話는 望海寺(또는 新房寺)의 創建에 얽힌 緣起說話로만 볼 뿐이다. 제 49대 憲康王이 開雲浦에 놀이갔다가 돌아 오려는데 갑자기 雲霧가 캄캄하게 뒤덮어 길을 잃게 되었을 때, 東海龍을 위하여 佛寺를 짓겠다고 하니 곧 雲霧가 개이고 東海龍은 기뻐하여 7子를 거느리고 와서 獻舞 奏樂으로 王德을 讚揚하였고 또 一子(處容)까지 王에게 받쳤다는 것이다. 그래서 王은 靈鷲山의 東麓에다 勝地를 가리어 절을 지었는데, 이 절이 龍을 위해 지은 望海寺(新房寺)라는 것이다.

⑩ 海龍王寺의 神龍

海龍王寺 開山祖인 普耀禪師가 南越에서 大藏經을 싣고 올 때 데리고 왔다는 이 神龍

에 대한 이야기도 앞에서 본 그보다 더 자세한 것이 없으므로 여기서는 그 중복을 피하여 생략한다.

① 寶壤과 西海龍子

雲門寺 開山祖 寶壤和尚이 中國에서 求法하고 돌아 오다가 西海 龍宮에 들러 龍子 璃目을 데리고 와서 雲門寺를 創建하고 살았다는 說話도, 앞에서 이미 그 전체적인 것을 대략 보았으므로 역시 여기에서 더 附言않기로 한다.

佛敎의 影響圈에 속하는 龍의 說話는 이 밖에도 없지 않지만, 遺事에 보이는(그리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佛敎的인 龍神說話로는 대략 以上과 같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三國遺事에 있는 新羅의 佛敎 龍神에 관한 資料를 대략 時代順으로 정리해 본 것에 불과하다.

2. 佛典에 보이는 龍王

三國遺事에 있는 龍에 관한 資料들을 대략 摘出해보았으며, 특히 新羅에 있어서의 佛敎的인 龍의 說話를 대충 앞에서 정리해 본 셈이다. 그러나 佛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佛敎的인 龍을 모르고는 新羅의 龍神思想을 理解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의 資料를 통해서 新羅의 龍神思想을 考察하기 전에 먼저 佛典에 보이는 佛敎의 龍부터 살펴 보려고 한다.

佛敎經典에 보이는 龍에 관한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 많은 龍에 관한 經說들을 여기에서 다 다루어 볼 수도 없고, 또 다 볼 필요도 없다. 그리고 佛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龍의 問題들을 모두 考察한다는 것도 여간 복잡한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다만 佛敎的인 龍을 아는데 중요한 經說만을 골라서 便宜에 따라 항목을 나누어 그 특징이 어떤 것인가를 대략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1) 歸佛 護法

龍이 護法八部衆의 하나이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佛敎와 龍과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였음을 보게 된다. 經典에 보면 많은 龍王들이 佛敎에 歸依하여 佛法을 守護하였다고 있다. 특히 ‘佛本行集經’등에 의하면, 釋尊이 成佛한 뒤에 가장 먼저 佛陀로부터 三歸 五戒를 받고 世間에서 最初의 優婆塞(在家弟子)가 된 것이 龍王이라고 되어 있다.

이에 관한 經說의 부분을 대략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이 때 迦羅(黑色)龍王이 佛에게로 나아가 佛足에 頂禮하고 나서, ‘世尊님 저의 이宮殿은 옛날에 이미 과거의 一切諸佛에게 布施하였읍니다. 諸佛께서는 저를 憐愍하사 저의 布施를 받으시고 이 宮殿에 머무셨읍니다. 그 諸佛은 拘留孫世尊·拘那含牟尼世尊, 迦葉世尊 등이 있습니다. 오늘 世尊께서도 저를 憐愍하시어 잠시 저의 宮殿에 머무시

옵소서. 저는 이 宮殿을 과거의 세 부처님께 布施하였는데, 오늘 世尊께서 네번째로 저를 위하여 저의 청을 받아 주신다면, 네 부처님(四佛)께서 저의 宮殿을 받으시는 功德이 具足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世尊은 그 청을 받아들여 곧 迦羅龍王宮殿으로 들어가, 加趺坐하여 7日동안을 일어나지 않고 解脫樂을 받으시고 7일이 지난 뒤에 正念 正知의 三昧로부터 일어나셨다. 그리고는 龍王에게 말하기를, ‘龍王아 너는 나의 곁으로 와서 三歸와 五戒를 받아 너의 생애에 大安樂을 얻도록 하라.’고 하셨다. 그러자 龍王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에 어김이 없을 것이며, 世尊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하고는 곧 佛을 향하여 合掌하고 佛과 法과 僧의 三寶에 歸依하였으며, 다시 佛에게 五戒를 받았다. 世間중에서 最初로 優婆塞의 이름을 얻었으며 畜生가운데서 가장 먼저 三歸依를 說해 받은 것이 바로 迦羅龍王이다.²⁸⁾

즉, 成道직후의 佛을 자기의 宮殿으로 모셔들어 7日간을 安坐하게한 迦羅龍王은 佛로부터 三歸와 五戒를 받아서 世間중에서는 가장 최초의 優婆塞(佛의 在家弟子)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때 迦羅龍王을 이어서 目眞隣陀龍王이 三歸 五戒를 받은 다음에, 전날의 牧羊子였던 天子가 佛에게 三歸 五戒를 받아서 하늘(天 世間)중에서는 최초의 優婆塞가 되었으며, 그 다음에 佛에게 처음으로 奉食하였던 두 商主가 사람의 世間에서는 최초의 優婆塞가 되었다는 것이다.²⁹⁾

다시 말한다면, 釋尊이 成佛한 직후에 아직 이 世間(天, 人, 畜生 등의 모든 世間)의 어느 누구에게도 佛法의 참 道理를 說하기 전에, 天人이나 人間보다도 먼저 畜生에 속하는 龍에게 說法(三歸, 五戒)하여 濟度하였다는 것이다. 龍王이 가장 최초의 弟子(優婆塞)가 되고 나서, 다음에 天人과 人間이 차례로 三歸 五戒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龍이 비록 釋尊에게 濟度되어 優婆塞가 되긴 하였지만 釋迦世尊 이전의 拘留孫佛·拘那含佛·迦葉佛 등의 過去佛에게도 宮殿을 布施하여 因緣이 깊다는 점이다. 즉 佛法과는 오랜 因緣이 있다는 것이다.

迦羅龍王 다음에 佛에게 歸依하였다는 目眞隣陀龍王의 경우도 이와 비슷함을 보게 된다.

“이 때 또 한 龍王이 있었는데, 이름이 目眞隣陀이다. 佛에게로 가서 佛足에 頂禮하고는 ‘世尊님 저의 宮殿은 往昔 過去에 일찍기 一切諸佛(拘留孫佛·拘那含佛·迦葉佛)께 布施하여 머무르시게 하였습니다. 지금 世尊께서 저의 청을 들어 주신다면, 저는 네 부처님(四佛)을 제 宮殿에 모시게 되어 善利를 얻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世尊은 目眞隣陀龍王을 따라 그 宮殿으로 가서 7日동안을 加趺坐하고 있었는데, 그 때 비가

28) ‘佛本行集經’ 卷第31 二商奉食品 第35·上(大正新修藏經 第3卷 p.800·上).

“爾時迦羅龍王 詣於佛所…於世間中 最初而得優婆塞名 於畜生中…所謂即是迦羅龍王.”

29) 上同經(同 pp.800~802.)

내리고 冷風이 크게 일어나 비는 잠시도 쉬지 않고 매우 추워졌다. 이 때 龍王이 그 큰 몸으로 일곱겹이나 佛身을 에워 감싸고 일곱개의 머리를 世尊의 위에 드리워 덮어서 世尊의 몸에 寒冷과 風濕과 塵塗이 닿지 않고 또 모기 등에(蚊虻)등 벌레가 물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 때 世尊은 目眞隣陀龍王에게 말하기를, ‘大龍王아, 三歸와 五戒를 받고 너의 생애에 安樂을 얻도록 하라.’고 하니, 龍王은 ‘世尊의 가르치심대로 하여 감히 어짐이 있겠음니까’ 하고는 佛의 가르침을 듣고 곧 佛을 따라 三自歸依하고 五戒를 받았다.”³⁰⁾

여기서도 역시 앞의 迦羅龍王의 경우에서와 비슷한 것을 보게 되지만, 좀 特異한 점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즉 龍王이 佛身을 寒冷 風濕 塵塗 및 蚊虻으로부터 保護하기 위하여 직접 온몸으로 감싸고 가리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龍의 佛身保護를 보게 되는데, 이 佛身保護는 佛法守護의 한 發端같이도 보여 진다.

그리고 이 밖에도 佛陀에 歸依한 龍의 事例로는, 釋迦佛의 出世를 기다리다가 鹿野苑으로 佛을 찾아가 三歸 五戒를 받고 佛에 歸依하였다는 伊羅鉢(菴香葉)龍王과 商佉(螺)龍王,³¹⁾ 그리고 一萬四千 諸龍이 三歸를 받고 모든 苦惱로부터 解脫하여 三寶를 深信하였으며, 다시 八十億 諸龍衆이 三寶에 歸敬心을 일으켰다.³²⁾는 등, 많은 佛典에서 헤아릴 수 없이 보게 된다. 또 龍王들이 많은 眷屬을 거느리고 佛의 說法時에 來會하여 聽法한다는 것도 여러 經典에서 볼 수 있으며, 특히 ‘因緣僧護經’³³⁾같은 經에는 大海龍王이 사람으로 변하여 佛이 住하는 祇園精舍로 가서 比丘가 되어 修道生活을 하였다는 이야기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佛陀에 歸依한 龍들은 물론 佛法을 守護하는 護法의 龍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護法에 관한 자세한 것이 보이고 있지 않으므로 그 구체적인 것은 알 수가 없다. 龍의 護法에 관하여서도 많은 經典에서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는 經說하나를 그 보기로 들어 볼까 한다.

“佛言……. ‘이 閻浮提内の 王舍城中에 聖人住處의 大支提(寺塔)가 있는데, 과거의 無量如來와 無量菩薩·緣覺·聲聞이 거기에서 修道하고 滅度하였으며, 지금도 그러하고 또 未來도 그러하다. 과거의 諸佛菩薩 聖人이 모두 婆婁那龍에게 付授하여 住持安立을

30) 上同 (同 p.800).

“爾時復更有一龍王名目眞隣陀…爾時目眞隣陀龍王從宮殿出以其大身七重圍遶擁蔽佛身復以七頭垂世尊上作於大蓋巖然而住心如念莫令世尊身體寒冷風濕塵塗蚊虻諸蟲觸世尊體…即從佛受三自歸依及受五戒.”

이와 같은 내용은 이 佛本行集經 외에 ‘五分律’ 卷第15, ‘有部毘奈耶破僧事’ 第5 등에도 보이는데, 龍王名이 文鱗 또는 牟枝隣陀 등으로 되어 있다.

31) ‘佛本行集經’ 37~38卷, 那羅陀出家品 第41 (新修藏 第3卷 pp.825~829) 및 ‘五分律’ 第15·‘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雜事’ 第21 등.

32) ‘大方等大集經’ 44卷, 日藏分中 三歸龍濟品 第12 (新修藏 第13卷 pp.289~293).

33) ‘佛說因緣僧護經’ (新修藏 第17卷 p.565).

擁護하게 하였는데, 나(釋尊)도 지금 역시 이 곳에 光明이 久住케 하고자 婆婁那龍에게 付囑하여 衆生이 能護我法(佛法)하고 精勤方便으로 坐禪 正慧하는 것을 항상 守護하여 供給供養하도록 한다.’ 하였다. 이 때에 婆婁那龍王이 말하기를 ‘그러하옵니다. 世尊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往昔 過去에 迦羅鳩村馱如來께서도 저로 하여금 이 곳을 守護하여 供給供養케 하셨으므로, 方便을 精勤하고 坐禪 正慧하는 善法의 修行者를 위하여 信徒가 되어 法滅에 이르기까지 供給 守護하였으며, 또 다음의 拘那迦牟尼에서 迦葉佛에 이르기까지 이 곳을 저에게 付囑하셨으므로 저는 또한 供給 守護하였습니다. 오늘 如來께서 또 이 곳을 저에게 付囑하시니 住持 守護하겠습니다.’고 하였다. 이에 世尊은 또 西瞿耶尼의 須彌山下 何羅閣低羅山中 聖人處所인 雲盡을 寶護龍王에게 付囑하고, 다시 東弗婆提의 須彌山下 青鷲伽那山中支提 聖人往處인 聖人生을 蘇摩呼嘯又龍王에게, 須彌山下 北脇之間의 華齒山中支提 聖人住處인 香峯牟尼를 毘伽蘇脂龍王에게, 西瞿耶尼洲中の 那焰牟尼聖人處所는 瞿娑嵐婆龍王에게, 東弗婆提洲中の 呢迦羅陀蓮華牟尼聖人住處는 婆私摸極又龍王에게, 北鬱多羅越洲中 香峯炎聖人住處는 地行龍王에게, 大海中の 娑伽羅龍王宮 摩尼藏炎牟尼聖人住處는 娑伽羅龍王에게, 須彌山頂 帝釋住處 開華藏殿牟尼聖人住處는 伊羅跋羅龍王에게, 閻浮中 難陀婆陀那大德聖人牟尼住處는 閻浮迦龍王에게, 閻浮中の 鞞奢利善住牟尼聖人住處는 婆須吉龍王에게, 閻浮中 迦毘羅婆須都 善香迦那迦燈牟尼聖人住處는 阿那婆達多龍王에게, 閻浮提中 摩伽陀國 毘富羅朋迦牟尼 聖人住處는 山德龍王에게, 閻浮提中 摩訶羅國 名愛雲炎牟尼聖人住處는 閻婆迦質多羅龍王에게, 閻浮提中 橋薩羅國 名闍耶首馱牟尼聖人住處는 吃利彌迦龍王에게, 閻浮提中 蘇波洛闍薩遠 牟脂鄰陀羅名香牟尼聖人住處는 牟脂鄰陀羅龍王에게, 閻浮提中 乾陀羅國 名大利舍那若摩羅牟尼 聖人住處는 伊羅跋多羅龍王에게, 閻浮提內 爾賓國中 名宮摩尼法牟尼 聖人住處는 吁留羅龍王에게, 閻浮提中 菴浮利摩國 名億藏炎牟尼聖人住處는 邏浮邏龍王에게, 閻浮提中 震旦漢國 名那羅耶那弗羅娑婆牟尼聖人住處는 海德龍王에게, 閻浮提內 于闐國中 水河岸上牛頭山邊 近河岸側 瞿摩婆羅香大聖人支提住處는 吃利呵婆達多龍王에게 각각 付囑하여, 一切流轉海中の 怖畏衆生이 安樂을 얻게 하고 堅固히 護持하여 散壞하지 않게 하도록 常加守護할 것을 누누히 당부하였다. 모든 龍王들도 過去佛로부터의 付囑을 받아 지금껏 守護해 왔으므로, 지금 世尊의 付囑을 더욱 받들어 佛法(聖人住處의 寺塔과 佛法修行者)을 守護供養하겠다고 다짐하였다.³⁴⁾

이것을 통해서 佛陀가 諸龍王들에게 佛法을 修行하고 받드는 聖人住處의 寺塔을 守護하고 佛者들에게 供養할 것을 付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모든 龍王들은 오랜 과거부터 過去諸佛로부터 付囑을 받아 守護하였으며, 現在와 未來에도 世尊의 付囑

34) ‘大方等大集經’ 卷45, 日藏分 護塔品 第13 (新修藏 第13卷 pp.293.中~294.中) 너무 많으므로 대충 요약해서 옮겼으며, 經文 引用도 생략하였다.

때로 守護할 것을 다짐하였음을 보게 된다.

(2) 法行 護世

龍이 佛法에 歸依하여 正法을 守護한다는 것을 앞에서 보았다. 그러나 모든 龍들이 다 佛法을 信奉하고 守護供養하였던 것은 아닌 모양이다. 龍의 世界에는 人間世上의 利益을 위하는 福德龍이 있는가 하면, 世間을 破壞하고 해롭히는 惡毒龍도 있는 모양이다.

이러한 면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龍을 說하고 있는 經이 아마 ‘正法念處經’일 것이다.

“……畜生에 있어서……. 만약 瞋과 癡를 많이 행하면 大海中の 깊은 곳에 生하여 毒龍의 몸을 받게되며 서로 瞋惱하고 瞋心으로 마음이 어지러워 毒을 토하여 서로 해쳐서 항상 惡業을 행한다.

龍이 사는 城은 戲樂城이라고 하는데 그 城은 縱廣이 三千由旬이나 되며 거기에는 龍王이 가득 차 있다.

龍王에는 2種이 있으니, 하나는 法行龍이며, 또 하나는 非法行龍이다. 하나는 世界를 守護하고, 하나는 世間을 破壞한다. 그 城中에서 法行龍왕이 사는 곳에는 熱沙의 비가 내리지 않고, 非法龍왕이 사는 곳에는 항상 熱沙의 비가 내려서 불붙는 것처럼 뜨거우며 宮殿을 태워 버린다. 龍의 世界에 熱沙의 비가 내리는 고통이 무슨 業因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하면, 이 衆生이 사람이었을 때 愚痴人이었으므로 瞋恚心에 의해서 僧怨과 聚落城邑을 불태웠기 때문에 죽은 뒤에 地獄으로 떨어져 無量苦를 받고 地獄을 나와 龍中에 태어났으나, 前世時에 村落과 僧房을 불태운 그 因緣으로 畜生の 몸(龍身)을 받아 熱沙에 타는 고통을 받는 것이다.

龍으로 태어났으면서도 熱沙의 燒害를 입지않는 까닭이 무엇이나하면, 이 衆生은 前生時에 諸外道世間の 邪戒를 받고 布施를 하되 淸淨하지 않는 등, 七種不淨과 瞋恚心으로 龍中에 태어나기를 願하여, 죽은 뒤에 戲樂城에 떨어져 龍王의 몸을 받아 그 城에 태어났으나, 瞋恚心이 없고 福德을 憶念하여 法行을 隨順하였으므로 이 龍王은 熱沙의 고통을 받지 않는 것이다.

法行龍왕이 사는 城에는 七寶의 城郭이 있으며, 七寶色光의 諸池水中에는 優波羅花의 꽃이 갖추어 있고, 맛있는 음식으로 항상 快樂하며, 香鬘, 瓔珞과 末香, 塗香으로 그 몸을 莊嚴하고, 憶念이 神通하여 뜻하는 바를 모두 얻게 된다. 그러나 그 頂上에는 龍蛇頭가 있으며, 그 城中에는 여러 法行龍왕이 있는데 그 이름이, 七頭龍王·象面龍王·婆修吉龍王·得叉迦龍王·跋陀羅龍王·盧檜多龍王·鉢摩梯龍王·雲鬘龍王·阿跋多龍王·一切道龍王·鉢婆呵龍王 등이다. 이들 福德諸龍은 隨順法行하여 마음이 좋하므로 때를 맞춰 降雨하고 諸世間에 五穀을 成熟시켜 豐樂安隱케하여 災雹을 내리지 않으며, 佛

法僧 三寶를 信하여 隨順法行으로 佛舍利를 守護한다. 이러한 龍王은 熱沙의 苦가 없으므로 第一樂을 받아 四天下에 甘雨를 내린다.

四天下의 사람들이 法에 隨順하여 父母를 孝養하고 沙門과 婆羅門을 供養하며 正法을 修行하면, 法行龍王이 大力을 增長하게 되어 法이 殊勝해지므로 微細雨를 내려서 五穀을 成熟시켜 色香味를 갖추게 하고, 諸災害가 없어서 果實이 繁茂하며, 木 꽃은 아름답고, 日月은 빛나며, 威德이 明淨하여 福德龍王은 毒風을 일으키지 않는다.

(四天下 즉 閻浮提, 瞿陀尼, 弗婆提, 鬱單越 등에서 각각 法行龍王이 順法修善衆生을 擁護하고 世間을 利益되게 하는 것을 說하고 있는데 생략한다.)

어떠한 惡龍들이 法行을 不順하는가. 法行을 不順하는 戲樂城의 諸惡龍王은 그 이름이, 波羅摩梯(惱亂)龍王·毘謹林婆(奮迅)龍王·迦羅(黑色)龍王·喉樓喉樓(多聲)龍王 등인데, 海中의 戲樂城內에 住한다. 諸衆生이 不善法을 행하고 父母에 不孝하고 沙門과 婆羅門을 不敬하면, 이들 非法 惡龍의 勢力이 增長된다.

(閻浮提·瞿陀尼·弗婆提·鬱單越의 四天下에서 非法 惡行龍王이 행하는 作惡 毒害를 각각 詳說 하여 있는데 생략 한다.)

어떠한 業때문에 非法行龍王이 蝦蟇를 吞食하고 沙土를 噉食하며 바람을 들어마시는가. 이 衆生은 사람이었을 때 妻子를 欺陵하여 美食을 혼자 먹으면서 그 妻子들이 먹고 싶어 箸를 삼켜도 혼자 배부르게 먹고난 뒤에야 妻子에게 그 찌꺼기를 주었으므로, 죽은 뒤에 龍中에 떨어져서 蝦蟇를 吞食하고 噉沙 吸風하는 業果를 받게 된 것이다. 또 諸龍이 降雨하고 諸災靄를 내리는 것은, 이 惡龍이 含毒瞋恚하여 法行을 不順하기 때문인데, 모든 龍王이 瞋恚 鬪諍하여 惡雲雨와 惡風災靄를 일으켜서 五穀을 모두 散壞하여 거두어 들이지 못하게 한다. 諸衆生이 非法를 행하기 때문에 惡龍이 瞋恚하여 그러한 變괴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閻浮提에 때 맞춰 비가 내려 甘蔗 稻 麻 叢林 大小麥豆를 潤益케하고 五穀을 增長하는 것은, 法行龍王이 때 맞춰 비를 내려 衆生을 安樂하고 利益되게 하기 때문이다. 諸衆生이 法行을 隨順하므로 때 맞춰 비를 내려 國土를 豐樂하게 하는 것이다.”³⁵⁾

이것은 經說의 부귀가 너무 많으므로 그 대략을 옮겨 본 것에 불과하다. 이 經說을 통해서 畜生인 龍으로 태어나는 業因과 法行 非法行的 2種 龍王과, 그 行業 果報 및 護世界 壞世間の 因緣 등을 볼 수가 있다.

여기서 특히 重要視할 만한 것은 法行龍王과 非法行龍王에 관한 것이라고 하겠다. 앞에서 보았던 歸佛 護法의 龍王들도 이 法行龍王에 속함은 물론이겠는데, 法行龍은 隨順法行하여 世間の 利益을 擁護 增長한다는 것이다.

35) '正法念處經' 卷18, 畜生品 卷5之1 (新修藏 第17卷 pp.105.中~107.上).

“如是比丘 觀諸畜生…有二種龍王 一者法行 二者非法行 一護世界 二壞世間…見法行龍王 降注時雨 以義安樂利益衆生 以諸衆生隨順法行 降注時雨 令國豐樂.”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世間 衆生들이 法行을 隨順 또는 不順하는 데에 따라서 法行龍과 非法行龍이 각각 그 勢力을 增長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世間的 사람들이 法에 隨順하여 父母를 孝養하고 沙門과 婆羅門을 供養하며 正法을 修行하면 곧 法行龍왕이 大力을 增長하게 되고, 그와 반대로 모든 衆生이 不善法을 행하고 父母에 不孝하며 沙門과 婆羅門을 不敬하면 곧 非法惡行龍왕이 그 勢力을 增長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世間인들이 隨順法行하면 法行龍왕이 더욱 힘을 얻게 되어 時雨를 내려 五穀을 풍성하게 하는 등 世間的 利益을 增長시키고 安樂을 擁護하지만, 그 반면에 사람들이 不順法行하면 法行龍왕이 힘을 못쓰고 그 대신 非法惡行龍왕이 큰 힘을 얻게 되어 五穀을 散壞하는 등 作惡毒害가 莫基하여 世間을 괴롭힌다는 것이다.

‘大雲輪請雨經’³⁶⁾에 보면, 難陀龍王 등 無量의 諸大龍王과 또 84億那由他 數의 龍王들이 모두 佛陀가 계시는 곳에 來會하여 發願禮佛하고 자리에 앉았을 때, 三千大千 世界의 龍王중에서 가장 殊勝한 不退轉을 大得한 無邊莊嚴海雲威德輪蓋龍왕이 일어나 모든 龍王을 대표해서 佛에게 “어떻게 하면 諸龍王들이 一切苦를 滅하고 安樂을 얻을 수 있으며, 또 安樂을 얻고는 이 世界안에 甘雨를 내려 一切의 樹木 叢林 藥草 苗稼를 生長시켜 世間的 모든 사람들이 모두 快樂을 얻게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世尊은 龍王에게, 大慈를 行하는 한 法을 說하여서 龍들의 諸苦를 滅除하고 安樂을 具足하게 하였으며, 또 ‘施一切衆生安樂’이라는 陀羅尼를 龍들이 항상 讀誦하고 繫念受持하면 一切諸龍의 苦惱를 덜하고 安樂하게 되며, 이들 龍이 安樂하게 되면, 閻浮提에 甘雨를 때때로 내려 一切樹木叢林이 成長하고 藥草苗稼가 모두 훌륭한 맛을 내게 된다고 하였다.

여기서는 佛에게 說法을 듣고 또 佛의 陀羅尼(呪)에 의해서 一切諸龍왕이 苦惱를 벗어나 安樂하게 되며, 나아가서 世間的 一切人들을 利益되게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佛母大孔雀明王經’에는, 諸龍왕의 名字를 慈心으로 稱念하면 모든 毒害를 다 除滅하게 되며,³⁷⁾ 또 福德龍왕의 이름만 稱念하여도 大利益을 얻게 된다.³⁸⁾고 있다. 이러한 龍王들은 모두 法行龍왕들이다. 法行龍왕은 또한 福德龍왕이기도한 것이다.

長阿含經에 의하면, 龍에는 三患이 있음을 보게 된다. 즉 “一者는 閻浮提에 있는 諸龍이 모두 熱風과 熱沙 때문에 皮肉 및 骨髓가 타서 괴로워 한다. 그러나 阿耨達龍만은 이러한 患이 없다. 二者는 閻浮提에 있는 龍宮에 惡風이 暴起하여 그 宮內에 붙어서 寶飾의 옷들을 날려버려 龍身이 저질로 들어나는 苦惱가 있다. 오직 阿耨達龍왕은 이런

36) ‘大雲輪請雨經’ 卷上 (新修藏 第19卷 p. 493~496).

이 大雲輪請雨經에는 二譯이 있어서 하나는 ‘隋 天竺三藏 那連提耶舍 譯’이며, 하나는 唐의 ‘不空 奉 詔譯’이다. 經名도 同一하며 內容도 비슷하나 여기서는 隋譯에 의하였다.

37) ‘佛母大孔雀明王經’ 卷上 (新修藏 第19卷 p. 417).

“阿難陀 有諸龍王名字 當起慈心稱念其名 攝除諸毒 所謂 持國龍王我慈念…饑益攝受離災厄 隨在時方常擁護。”

38) 上同 經 卷中 (同 p. 432).

患이 없다. 三者는 閻浮提의 龍王들이 그 宮中에서 娛樂을 하고 있을 때 金翅大鳥가 宮에 들어와 龍들을 잡아가서 먹기 때문에 諸龍은 怖懼하여 항상 熱惱를 갖게 된다. 오직 阿耨達龍만은 이 같은 患이 없다. 그래서 阿耨達(無熱惱)이라 이름한다.”³⁹⁾고 있다. 모든 龍에게 다 있다는 熱沙·惡風·金翅鳥害의 三患이 없다는 阿耨達龍에 대하여 ‘弘道廣顯三昧經’에는, “오랜 옛부터 德本을 지어 菩薩行을 遵修하고 六度의 大乘行에 堅住하여 衆生을 化導하고 救濟하며, 일찌기 96億諸佛을 섬겨 쌓은 功德이 헤아릴 수 없고 方便으로 널리 五道에 나투어 諸愚冥을 拔除하여 菩薩의 無欲行을 닦게 하고 慈心으로 一切를 濟度하여 罪類를 불쌍히 여겨 龍으로 나투었으며, 億數의 化龍으로 하여금 災殃을 免하도록 하고 스스로는 이 阿耨達池에 있는데, 八千萬衆의 諸眷屬을 거느리고….”⁴⁰⁾라고 있다.

이에 의한다면 이 阿耨達龍王은 비록 龍의 몸을 나투고는 있으나 菩薩行을 닦은 大乘菩薩이라고 하겠다. 96億諸佛을 섬겼으니 龍으로서도 法行龍이요, 福德龍王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阿耨達龍王은 물론 그 池內에 있는 八千萬衆의 眷屬龍들도 모두 三患이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佛敎에 있어서 未來의 理想世界라고 할 수 있는 彌勒佛 出現의 國土인 翅頭末城에는, 龍王이 밤이면 細雨를 내려 땅을 潤澤하게 하여 먼지가 일지 않게 하고, 낮이면 쾌청한 날씨가 되게 한다고 있다. 즉,

城中有龍王 名曰水光 夜雨香澤 晝則清和.”⁴¹⁾

有大力龍王 名曰多羅尸棄 其池近城 龍王宮殿在此池中 常於夜半 降微細雨用淹塵土 其地潤澤譬若油塗 行人來往無有塵坌.”⁴²⁾

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그 經典 자체도 未來의 佛이 出現하는 世界를 說하고 있는 것이지만, 龍王에 있어서도 어떤 의미로는 佛敎龍의 未來型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龍王은 國土를 保護하면서 밤에는 비를 내려 먼지를 씻어내어 地上을 潤澤하게 하고, 낮에는 환짝개인 맑은 날씨가 되게 하여, 福德人의 世間을 豊樂安隱하게 도운다는 것이다.

(3) 經典 奉安

佛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龍 즉 佛敎의인 龍王에 대해서 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復次阿難陀 汝當稱念諸龍王名字 此等福德龍王若稱名者 獲大利益 其名曰 佛世尊龍王…二小白龍王.”

39) ‘佛說長阿含經’ 卷18, 第4分 世記經 閻浮提州品 第1 (新修藏 第1卷 p. 117 上).

“此閻浮提所有龍王盡有三患 唯阿耨達龍 無有三患…”

‘大樓炭經’ 卷1, 閻浮提品 第1 에도 같음.

40) ‘佛說弘道廣顯三昧經’ 卷1, 得普智心品 第1 (新修藏 第15卷 p. 488).

41) ‘佛說彌勒下生經’ 竺法護 譯 (新修藏 第14卷 p. 421 上).

42) ‘佛說彌勒下生成佛經’ 鳩摩羅什 譯 (新修藏 第14卷 p. 423 下).

가지를 대충 보았다. 그 밖에 龍王은 大海中の 龍宮에 大乘經典을 安置 奉藏하고 있다는 事例를 보게 된다.

‘大方等大集經’⁴³⁾에는, 娑伽羅龍王이 日藏大授記 大集經을 抄하여 宮中에 安置한다는 것이 있다. 이것은 日藏大授記經에만 限한 것이어서 全體藏經과는 관계가 없지만 大乘經典의 龍宮安置를 보여주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또 龍樹菩薩은 大龍菩薩의 안내로 海中 龍宮에 들어가 七寶藏을 열고 七寶函에서 내어주는 諸方等(大乘)深奧經典 無量妙法을 받았다.⁴⁴⁾고 있다. 이로부터 諸部 大乘經典은 모두 龍樹가 龍宮에서 齎來한 것으로 전하여져 있다. 그래서 經典을 龍藏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法行, 護法의 龍王은 佛法에 歸依하여 佛의 가르침에 따라 正法을 守護하고 世間衆生의 利益安樂을 增長시키면서, 또 寶藏經典을 奉安守護하였다가 世間에 流通되도록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상에서 대략 본 것 외에도 龍에 관한 중요한 經說이 많이 있고, 또 佛教龍의 특징을 보여주는 事例가 적지 않지만 이 정도에서 그치기로 한다.

3. 新羅 龍神의 特性

(1) 新羅의 佛教龍

앞의 1章에서 三國遺事에 있는 龍의 資料를 모두 摘出해 보았고, 특히 新羅의 佛教的인 龍의 說話를 대충 整理해 보았다. 그리고 그 思想性을 考察하기 위하여 먼저 2章에서는 佛典에 보이는 佛教의 龍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新羅의 龍神이 지니고 있는 그 나름의 思想性 또는 어떤 特性을 찾아 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한다.

앞에서 우리는 皇龍寺의 護法龍을 筆頭로 해서 10件의 新羅佛教的인 龍神說話를 보았다. 그 說話들이 모두 現代常識으로 볼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虛荒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들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단순히 虛荒하다는 한가지 理由만으로 전연 無視해 버릴 수 없는, 오랜 歷史와 깊은 緣由와 더 많은 思想的 內面世界가 깃들여 있을 것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우선 여기서는 그 說話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新羅 佛教龍의 대체적인 특징같은 것을 보기로 한다.

이 11件의 說話중에서 惠通의 毒龍은 애초에 양심을 품고 양갓음하기 위하여 건너 온

43) ‘大方等大集經’ 卷45, 日藏分 護塔品 第13 (新修藏 第13卷 p.297·上).

44) ‘龍樹菩薩傳’(新修藏 第50卷 p.184·186).

“大龍菩薩…即接之入海 於宮殿中 開七寶藏 發七寶函 以諸方等深奧經典 無量妙法授之龍樹.”

악질적인 外來龍이기 때문에, 다른 10件的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龍과는 전혀 다른 異質의 龍임을 보게 된다. 그 壽龍 하나를 제외하고는⁴⁾ 모두가 비슷 비슷한 성격을 보여 주는 法行龍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新羅龍(壽龍은 제외)의 處所와 對人間關係 등을 그 類型別로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첫째, 그 住處面에서 본다면 海龍과 池(泉, 井)龍 그리고 陸(地)龍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海龍에는 또 西海龍과 東海龍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西海龍은 金剛三昧經을 流布한 鈐海龍王과 明朗 普耀 寶壤 등 法師의 이야기에 나오는 龍들이 이에 속하며, 東海龍은 文武王의 護國龍(玉帶를 바친 龍도 포함)과 義湘에게 如意珠를 바친 龍, 그리고 望海寺를 創建케 한 龍 등이며, 元聖王 때의 三護國龍은 池龍에 속하고, 眞興王 때 皇龍寺터에서 나타난 黃龍은 地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義湘의 善妙女龍은 西海에서 龍이 되기는 하였으나 義湘을 따라 다녀서 일정한 住處가 따로 없기 때문에 구태어 소속을 붙인다면 行龍이라고나 할까.

둘째, 그 人間과의 관계 면에서 본다면, 大德高僧을 龍宮으로 請하여 聽法하거나 供養한 事例(太和池 龍神이 慈藏을 請齋 7日 供養한 것, 明朗이 海龍의 請으로 龍宮에 가서 傳法하고 黃金을 받은 것, 寶壤이 龍宮에 들어가 念經하고 袈裟를 받은 것 등.)와, 法師를 侍奉, 擁護한 事例(義湘의 善妙龍과 洛山聖崛에서의 東海龍, 眞表에게 玉袈裟를 바친 龍王, 普耀를 따라 온 神龍, 寶壤을 따라 온 龍子 璃目 등.)와, 佛寺를 創建케 한 것(皇龍寺의 黃龍, 望海寺의 東海龍 등.)과, 佛經을 弘布케 한 것(鈐海龍王), 國家 守護의 神寶를 내놓은 것(文武王 龍의 神笛과 海龍의 玉帶), 그리고 國王에게 救助를 請한 것(護國三龍) 등의 경우로 분류할 수가 있겠다.

여기서 특히 지니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龍가운데는 人間이 誓願과 希求로 인하여 化現한 龍이 있다는 점이다. 즉 文武王의 東海龍과 善妙女龍의 경우가 그것인데, 본래 龍이었던 다른 龍들을 自然龍이라고 한다면, 이 龍들은 人爲龍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이와 같이 그 處所, 位置와 對人間關係 등에서 新羅龍의 類別을 대충 보았는데, 그 性格에 있어서의 특징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遺事を 중심으로 해서 볼 수 있는 이들 新羅의 龍들은 말할 것도 없이 佛敎의인 龍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法行龍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法行龍이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이들 龍에게는 護法的인 면과 護國的인 면을 두드러지게 볼 수가 있다. 新羅의 龍들을 아마 이 두가지 면에서 특징지워 보아야 할 것 같다.

遺事에서도 護法龍 또는 護國龍이라고 明示하여 있는 것⁴⁵⁾을 볼 수 있다. 비록 遺事에서 明示하지 않았으나 하더라도 護法龍과 護國龍에 해당되지 않는 龍은 없다. 護法龍이란 文字 그대로 佛法을 守護하는 龍을 일컫는 것인데, 여기서는 寺塔을 守護하고 說

法을 聽聞하며 佛經을 받들고 三寶(佛 法 僧)를 擁護하여 佛事를 돕는 龍은 護法龍인 것이다. 그러므로 中國 太和池 龍神이 護法龍이라고 指稱한 皇龍寺의 黃龍만이 護法龍이 아니라, 金剛三昧經을 新羅人에게 弘布한 龍王 鈐海, 義湘을 聖岬로 안내하고 如意珠를 바친 東海龍과 또 그의 佛事를 도운 善妙龍, 明朗에게 法을 듣고 黃金을 施한 西海龍, 眞表에게 袈裟를 받치고 八萬眷屬과 함께 侍從한 龍王, 望海寺를 創建하는 계기가 되게 한 東海龍, 普耀를 따라 大藏經을 싣고와서 海龍王寺 龍王堂에 머물었다는 神龍, 寶壤에게 說經을 듣고 袈裟와 一子를 施한 西海龍과 寶壤을 따라와 雲門寺에 살면서 法化를 도왔다는 龍子 璃目 등은 모두 護法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외의 龍은 모두 護國龍이 되는 셈이다. 즉 護國의 神寶인 萬波息笛을 내놓은 文武王의 化現龍과 그 神笛을 만들 대나무를 전달하고 窠마다 眞龍이라는 黑玉帶를 받친 東海龍도 護國龍이며, 元聖王 때 唐使를 따라왔던 河西國人에게 잡혀 갈 번 하였던 東池 靑池 및 芬皇寺 井의 세 龍도 護國龍이었다는 것이다. 文武王이 평소에 스스로 護國大龍이 되겠다고 말한 적이 없더라도 神笛을 내놓아 國泰民安하게 한 龍이라면 護國龍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元聖王 때의 세 龍은 그 妻龍들이 護國龍이라고한 것을 통해서 비로소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明朗이 龍宮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文虎王法敏’條나 ‘惠通降龍’條에 있는 것처럼, 龍宮에서 神印秘法을 傳得하여서 그 秘法으로 外敵을 막아 國家를 守護하였다면 그 龍도 護國龍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아 遺事에 있는 新羅의 佛教龍들은 護法龍과 護國龍으로 二大別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佛教的인 龍 즉 法行龍으로서의 新羅 龍에는 이와 같이 護法龍과 護國龍의 두가지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說話들이 보여주는 龍의 外觀(外形)的인 것에 불과할 뿐이다.

(2) 崇佛 護國의 龍神

앞에서 우리는 新羅 佛教龍의 대체적인 특징으로 護法龍과 護國龍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 文字 그대로 護法龍은 佛法을 信奉하고 擁護하여 世間の 佛事를 保護助揚하는 龍이며, 護國龍은 世間衆生의 利益 安樂을 위하고 國土를 守護하는 龍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어디까지나 대체적인 外觀(形)上的 구별에 지나지 않을 뿐이지 그 類別 자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즉 護法龍과 護國龍은 아무런 相關性이 없는 전연 別個의

45) 遺事 卷3 塔像4, ‘皇龍寺九層塔’條: “神曰 皇龍寺護法龍 是吾長子...” (崔南善 編 新訂本 p. 138).
 同 卷2, ‘文虎王法敏’條에,
 “朕身後 願爲護國大龍...” (同 p. 73).
 同, ‘元聖大王’條에,
 “留我夫等護國龍也”(同 p. 84).

存在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護法龍은 經典에서의 歸佛 護法の 龍과 같으며, 護國龍은 역시 經典에서의 護世 法行龍과 같은 것이라고 하겠다. 그것도 便宜上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뿐이지 그 두가지가 전연 別個의 것이 아니다. 護世 法行龍은 佛法에 歸依하여 寺塔 聖地(聖人住處)를 守護하며 正法(佛法)에 의하여서 法行 利世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면에서는 護法の 龍이기도한 것이다. 또 歸佛 護法龍도 法行에 隨順하기 때문에 正法을 順行하는 衆生과 寺塔 및 聖人住處의 世間을 利益되게 하고 守護하는 것이므로 또한 護世 法行龍이기도한 것이다.

그와 같이 新羅의 龍에서도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다. 慈藏이 唐에 갔을 때 新羅의 興國에 관하여 자세한 方法을 일러준 太和池의 龍神은, 護法龍이 守護하고 있는 皇龍寺 안에다 九層塔을 세워서 隣國을 降伏받고 國家를 永安하게 하라고 하였다. 九層塔은 新羅에 있어서는 統一의 塔이요 國防塔이며 護國塔인데, 新羅에서는 이 護國塔을 護法龍이 지키는 皇龍寺에다 세웠던 것이다. 이로부터 護法龍이 護國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文武王도 “護國大龍이 되어 佛法을 崇奉하고 國家를 守護하겠다.” (崇奉佛法 守護邦家)라고 하여, 먼저 佛法 崇奉을 들고 다음에 國家守護를 들었다. 즉 護國의 大龍이 되어 佛法을 崇奉하고 國家를 守護하겠다는 것에서 崇佛과 護國이 別個의 것이 아니라 護國을 하자면 崇佛을 해야 하고, 또 護國龍은 佛法을 崇奉하는 龍이기도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萬波息笛의 說話에서는 전연 佛敎적인 것이 보이지 않고 단순히 護國의 神笛을 產出시킨 龍으로만 보여져 있는 文武王 化現의 護國大龍은 佛法을 崇奉하는 바탕위에서의 龍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것은 더욱 感恩寺 金堂의 섬돌 아래에다 一穴을 파놓고 이 文武王 化現의 護國龍이 들어와 머물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에서도 알 수가 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즉 佛寺의 金堂 아래에 龍의 住處를 마련하여 佛道場에 머물면서 佛法을 崇奉하고 道場을 지키면서 國家를 守護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엿볼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元聖王 때의 세 護國龍중의 하나인 靑池 즉 東泉寺 泉의 龍은 東海의 龍이기도 한데 이 龍은 東海를 往來하면서 東泉寺에서 聽法하였다고 한다. 이 이야기에서도 護國龍은 佛法을 崇奉한다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 셋 護國龍중에는 芬皇寺 井의 龍도 있었다고 하니, 이 龍은 필시 芬皇寺를 守護하는 護法龍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佛敎의 道場인 寺院안에 있는 龍이라면 말 할 것도 없이 道場을 守護하는 護法の 龍일 것임에는 틀림이 없겠는데, 또한 護國龍이라고 있으니 護法龍이나 護國龍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전연 同一한 성질의 것이라고도 보겠다.

이렇게 보아 新羅 龍神의 특징이 된다고 하였던 護法龍이나 護國龍은 新羅 龍의 種

類가 아니라 新羅 龍이 보여 주는 兩面性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護法的인 면을 중심으로 해서 보여준 龍과 護國의인 성격을 주로 나타낸 龍의 두가지 方面으로 볼 수 있다는 것 뿐이지, 결코 두 種類의 龍이 각각 따로 存在해 있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經典에서 볼 수 있는 法行龍이 歸佛護法으로 正法을 隨順하여 世間的 利益安樂을 增長擁護한다는 것과 같이, 新羅의 龍도 佛法을 崇奉하고 國家를 守護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崇佛 護國의 龍들이 西海와 東海에서 그리고 國內의 泉池 및 伽藍에 살면서 新羅의 佛法을 擁護하고 國家를 守護하였다는 것에서, 新羅의 佛教國家의 位置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龍들은 佛法을 崇信하는 國土가 아니면 머물지도 않을 것이고 佛法이 없는 世間에는 出現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본 數處의 經典에서도 있는 바와 같이 佛緣이 있는 곳에 法行龍은 머물고 또 佛法을 正修하는 聖人住處나 寺塔의 聖地를 守護하며, 正法을 隨順하는 衆生이 사는 世間에 나타나 그들의 利益安樂을 爲하고 擁護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護法, 護國의 法行龍이 머물고 또 出現하는 新羅는 틀림없는 佛緣國土요 佛國淨土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新羅人들은 過去佛인 迦葉如來가 이 땅에서 說法하였고 또 그 때에 佛法이 크게 興盛하였으므로 그 당시의 伽藍터와 迦葉佛의 冥坐石이 現世까지도 남아 있다고 實例를 들어서 주장하였고 또 그렇게 믿었다. 그러한 그들이 佛國新羅를 守護하는 法行龍의 存在를 設定하여 事實化시켰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新羅에 있어서의 護法 護國龍은 崇佛護國의 新羅 佛教思想에 있어서 必然的인 所産이며, 佛國淨土의 가장 믿음직한 守護者구실을 하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3) 佛教國家의 特殊性

新羅에 있어서 崇佛護國의 龍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眞興王 때 부터라고 할 것이다. 眞興王은 新羅佛教의 實質的인 大興者요 國家 佛教의 性格의 方向을 確立하였다고 볼 수 있는 王이다. 그 眞興王이 세운 적지 않은 大寺院들 중에서도 皇龍寺는 그 建立期間으로나 規模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國家의 信仰的인 면에서도 當代는 물론 新羅一代에 있어서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었던 大刹이었다. 그러한 皇龍寺를 세울 때 나타났던 그 黃龍이 바로 護法龍으로서 新羅에서는 가장 최초로 볼 수 있는 崇佛護國의 龍이었다는 것이니, 실로 우연한 일이 아닌 것 같으며 거기에는 매우 깊은 意味가 內在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이 보이기 시작한 崇佛護國 龍은 그로부터 新羅末에 이르기까지 그 存在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그 護法 護國龍들은 新羅의 佛教와 國運의 盛衰에 따라 그 樣相과 性格들을 각각 달리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護法龍으로 그 存在를 들어 낸 皇龍寺의 黃龍은 眞興王의 佛寺創建에 한 動機가 되게 하였을 뿐이며 그 밖에 아무런 것도 볼 수가 없는데, 그 뒤 善德王 때의 慈藏에 의하여 비로소 적극적인 龍의 모습을 새롭게 보여 주고 있다할 것이다. 이 龍이 護法龍이며 中國 太和池 龍의 長子로서 梵王의 命을 받아 新羅에 와서 皇龍寺를 지키고 있다는 것에서, 얼핏 新羅 護法龍이 中國 龍神의 從屬的인 뜻으로 보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新羅 龍神의 優位와 宗主性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長子는 相續者이면서도 새로운 主人이 될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新羅의 佛敎가 직접 中國에서 건너왔으므로 佛敎에 있어서의 모든 것은 中國을 통해서만 생각할 수 있었던 당시에 있어서, 佛敎의인 龍神도 中國과 관련을 시킨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新羅의 龍을 中國 龍의 長子라고 하여 지금까지는 비록 中國이 중심이지만 앞으로는 그 宗主權이 新羅로 넘어와서 長子가 새로운 家長이 되듯이 新羅의 龍이 그 正統을 이은 主龍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할 것이다. 그리고 또 太和池 龍神 스스로도 자기를 위한 寺塔을 세워 주면 그 德을 갚겠다고 하였으며, 그래서 新羅에서는 그를 위해 太和寺와 塔을 세웠다는 것에서도 中國 太和池 龍神의 新羅歸化같은 것을 엿보게 하는 것 같기도 하다.⁴⁶⁾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미 老衰한 中國 龍神의 時代는 가고 새로운 젊은 新羅의 龍이 君臨한다는 意味의 것으로 볼 수가 있으며, 또 더 나아가서 佛敎 자체도 中國의 佛敎보다는 新興 新羅의 佛敎가 優越하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하겠다. 그 뿐 아니라 이러한 護法龍이 지키는 皇龍寺에다가 九層塔을 세워서 三國을 統一하고 外敵의 侵害를 막아 王祚가 永安하도록 하였으니, 皇龍寺의 龍은 護法龍으로서 만이 아닌 護國龍으로서의 매우 적극적인 思想性을 보여 준다고도 볼 수 있겠다.

그리고 元曉로 하여금 金剛三昧經疏를 지어 講說하게 하였던 西海龍王 鈴海의 이야기에서는, 統一大業을 이룩한 新羅의 佛國土的인 면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海龍이 龍宮에 秘藏된 散經을 내놓아 新羅의 法師들로 하여금 經典을 編次하고 또 著疏 講說하게 하였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新羅가 佛國土이기 때문이라는 것과 新羅佛敎의 創意性같은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 때의 龍神은 新羅의 佛敎와 國家를 守護하는 龍으로서의 구실은 물론 적극적인 興法活動까지도 보여 주고 있으며, 또 王后의 疾病까지 낫게 하고 있다. 秘藏의 經典을 流布케 하였다는 점에서는 大方等大集經과 龍樹傳에 보이는 龍宮奉藏의 경우와도 같다고 하겠다.

義湘에게 如意珠를 받쳤다는 東海龍과 그의 佛事를 도왔다는 善妙龍에게서도 적극적인 活動性을 보게 된다. 그리고 明朗을 宮으로 招請하여 法을 듣고 黃金을 施한 西海龍

46) 遺事 避隱 8, 朗智乘雲 普賢樹 條에, “山之東有大和江 乃爲中國太和池龍 植福所創 故云 龍淵。” 즉 靈鷲山の 東에 있는 太和江 가에 中國 太和池 龍의 資福을 위한 寺塔을 세웠기 때문에 그 江을 龍淵이라고 하였다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도 中國 龍의 新羅來附같은 것을 엿보게한다 하겠다.

이나, 文武王 化現의 東海 護國龍, 眞表를 侍從한 龍王 등은 모두 적극적이고 活氣찬 護法과 護國의 活動을 보여 주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元聖王 때의 護國 세龍은 한낱 外國人의 呪術에 걸려 꼼짝 못하고 잡혀가야 하는 형편없이 無能力하고 허약한 龍으로 나타나 있다. 또 憲康王 때 望海寺를 짓게한 東海龍은 雲霧로 길을 막았다가 創寺하겠다는 말만 듣고도 雲霧를 거두고 기뻐하였으며, 眞聖王 때의 居陁知 이야기에 나오는 西海龍은 沙彌로 변한 여우의 誦呪에 맥을 못 쓰고 모든 眷屬의 肝을 먹히우다가 기껏 한낱 弓士의 화살을 빌려야 하는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 寶壤을 따라왔던 龍子 璃目도 天帝의 誅罰을 피하여 法師의 床下에 숨었다고 있다.

이와 같이 說話에서 볼 수 있는 龍神의 하나 하나를 살펴 보면, 佛敎 또는 國運의 盛衰와 매우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제 방금 본 것처럼 佛敎가 크게 興하고 國運이 昌盛하였던 眞興王 이후로 부터 統一을 完成한 全盛期의 景德王代에 이르기까지는 新羅의 龍神들이 한결같이 活氣차고 적극적인 活動면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佛敎가 沈滯해지고 國政이 混亂하기 시작하던 元聖王 때 부터는 龍들이 無力하고 虛弱하여 매우 소극적인 非活動性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護國 세龍의 경우에는, 一國을 守護한다는 龍이 그나마 한마리도 아니고 세마리씩이나 外國人의 呪術에 小魚가 되어 잡혀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그처럼 약해빠진 無力한 龍이 어떻게 國家를 守護한다는 것인가, 한낱 無名의 外國人에게 잡히는 그러한 龍의 주제에 무슨 護國龍이냐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앞에서 본 經說들을 통해서 解答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虛荒해 보이는 說話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터무니 없이 荒唐無稽한 것은 결코 아니다. 佛敎와 國運이 興盛할 때에는 龍神도 힘이 차고 活力이 넘쳐 있으며, 佛法과 國家가 混亂衰微하였을 때에는 龍神이 無氣力하고 懦弱하다는 것에서, 어떤 眞實과 眞理性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앞에서 이미 본 것처럼 ‘正法念處經’에서는, 四天下의 사람들이 法에 隨順하여 父母를 孝養하고 沙門과 婆羅門을 供養하여 正法을 修行하던 法行龍王이 큰 힘을 增長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와 반대로 사람들이 法에 隨順하지 않고 父母에 不孝하고 沙門을 不敬하며 不善法을 행하면 非法行龍王이 큰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것은 곧 法行龍王이 큰 힘을 잃어서 無力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즉 世間人이 正法에 隨順하여 모든 善法을 행하면 護世 法行龍이 큰 힘을 더욱 얻게 되어, 이를 福德龍(法行龍)이 佛法 僧을 崇奉하고 寺塔을 守護하며 順法 修善衆生을 擁護하고 世間을 利益되게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世間人이 正法에 隨順하지 않고 不孝不善하면 곧 福德 法行龍이 큰 힘을 잃게 되어 世間을 利益되게 하는 能力이 感退된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理法대로 新羅의 崇佛護國의 法行 福德龍도, 新羅人들이 佛法을 隨順하여 父母에 孝道하고 沙門과 師長을 恭敬하며 善法을 행하였을 때에는, 더욱 큰 힘이 생겨서 活力있게 新羅國土를 守護하고 世間을 利益되게 하였기 때문에 國力이 昌盛하여 三國도 統一되고 國泰民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國政이 混亂하고 人心이 흉흉해져서 佛法이 沈滯해졌을 때에는 崇佛護國의 福德 法行龍이 힘을 잃고 護世 利益은 커녕 자기 몸 하나도 주체 못하여 사람이나 여우에게 잡혀 가는 극히 無能力한 존재로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三國이 統一되고 훌륭한 高僧들이 많이 輩出되어 國運의 昌盛도 極에 달하였고 佛敎 文化도 極盛期에 이르렀던 統一적후의 文武王 代에서 景德王代 사이에 보여 주는 新羅 法行龍의 說話는 그 내용들이 모두 힘차고 적극적인 것이라고 앞에서 대충 언급하였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며 구체적으로 新羅 法行龍의 旺盛한 面貌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은 萬波息笛의 說話⁴⁷⁾라고 할 것이다. 그 東海의 護國大龍(文武王의 化現龍)은 護國의 神寶인 萬波息笛을 내놓으면서 바다위에 小山을 떠다니게 하였고, 거기에 一竿竹을 現出시켰으며, 또 그 神笛을 불면 兵亂이 없어지고 病이 나으며 가름에는 비가 오고 장마에는 개이며 바람이 자고 물결이 가라앉아 天下가 太平하여지는 無限한 權能을 驅使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 함께 받았던 黑玉帶도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별다른 것으로 볼 수는 없는데 그 窠 하나를 따서 물에 넣으니 갑자기 龍이 되어 하늘로 올라 가고 그 시내물은 깊이 패여 淵을 이루었다는 것이니, 하나의 靜物인 玉帶가 그만큼 生動하는 威力을 그 속에 內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만큼 그 때의 護國龍은 創意的이고 霸氣만만한 福德龍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고 할 것이다. 一竿竹의 笛을 부는데 天下의 萬波가 息滅하여 國泰民安하여 지며, 玉帶의 一窠가 땅을 들러가지게 하고 成龍上天한다는 그러한 無窮無盡한 威力과 生動하는 기운을 지니고 있는 것이 統一적후의 新羅 崇佛護國(福德 法行)의 龍神이었다.

이야말로 三國을 統一하고 唐의 勢力까지도 半島內에서 逐出하여 비로소 民族의 大統一을 이룩한 新羅의 國力과 氣魄을 얼마나 잘 反映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그러한 護國龍이 東海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三國史記에 그토록 많이 보이는 倭人의 侵犯 記錄이 統一을 前後해서는 전혀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때의 新羅佛敎는 오늘날까지도 그 文化遺產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더 할 수 없는 極致를 이루고 있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한 活力넘치고 能動的인 龍의 說話는 35代 景德王과 다음의 惠恭王代(眞表에게 玉袈裟를 받치고 八萬眷屬과 함께 侍從하였다는 龍王)이후로는 통 볼 수가 없다.

47) 이 說話에 관해서는 拙稿 '萬波息笛說話攷'(東大 論文集 第11輯 pp. 43~64)에서 이미 考察한 바가 있으나, 거기서는 주로 護國思想的인 것을 다루었다.

38代 元聖王 때에 外國人에게 잡혀 갈변 하였던 無氣力한 세 護國龍의 이야기가 보이
고는 49代 憲康王 때에 와서 創寺因緣의 雲霧를 끼게한 東海龍의 이야기가 보이는데, 여
기서는 절을 짓게하고 또 7子를 거느리고 와서 獻舞奏樂하였으며, 다시 1子까지도 王
에게 반겼다고 있으니 그리 無氣力한 龍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같은 創寺
緣起라도 앞의 浮石寺 創建의 善妙龍이나 明朗의 金光寺 경우와 비교해 보면 적잖이 소
극적임을 보게 된다. 善妙龍은 자신이 직접 커다란 浮石으로 化하여 공중에 떠서 神秘
로운 威力을 보이므로써 義湘의 創寺를 可能하게 하였고, 明朗은 西海龍의 請에 응하
여 龍宮으로 가서 法을 傳하고 龍의 施金으로 절을 꾸며 黃金 빛이 매우 찬란하므로 金
光寺라 하였다는 것이다. 이 두 경우에는 龍이 직접 創寺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
음을 보게 된다. 善妙龍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만, 明朗의 경우 金光寺를 꾸미는데 필
요한 黃金을 龍이 직접 布施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皇龍寺의 경우에도 黃龍이 직접
나타나 보였기 때문에 王宮지를 것을 중지하고 寺院으로 고쳐 짓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望海寺의 경우 東海의 龍은 직접 몸을 나타내지도 않고 雲霧를 끼게하여
그 뒤에 숨어서 日官의 占을 통해서만 비로소 그의 뜻을 王에게 알려 創寺하게 하였으
니, 이 龍은 그만큼 陰性的이고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龍이기 때
문에 아직 절도 짓지 않고 創寺의 결정만을 하였는데도 곧 雲霧를 거두고 기뻐하며 나
타나 獻舞奏樂까지 하는 懦弱性和 非能動的인 면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51代 眞聖女王 때의 居陞知 說話에서의 西海龍은 一老狐에게 肝을 뺏어 먹히우는 無
力한 모습을 보여 주고, 羅末의 海龍王寺 龍은 普耀禪師가 싣고 오는 大藏經을 못가져
가게 하려고 방해하다가 도리어 普耀의 祝願에 이끌려 따라와 海龍王寺에 머물게 되었
다는 것이다. 이 龍神에서도 역시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면을 볼 수가 없다. 그런데 오
히려 寶壤의 경우에는 가장 後期에 속하면서도 그러한 면이 좀 덜한 것을 보게 된다
西海 龍이 寶壤을 龍宮으로 맞아 들여 講經을 듣고 金羅袈裟를 布施하고 一子까지 딸려
보였다는 것은, 지금까지 본 無氣力한 龍들과는 달리 能動的이고 적극적인 면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것도 그 龍子가 寶壤의 부탁으로 비를 내렸다가 天
帝의 誅罰을 받게 되어 禪床下에 숨었다는 것에서 그리 힘찬 龍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
는 것도 같다. 그래도 지금까지 보아 온 無氣力하고 陰性的이며 소극적이고 懦弱한 末
期的 龍들과는 다른 점이 보인다는 것은, 이 때가 新羅末이면서도 오히려 新興國인 高
麗 初이기 때문인지도 모를 일이다. 이 寶壤은 高麗 太祖를 도운 일이 있으며, 太祖로부
터 크게 존경을 받았던 高麗 初의 高僧이었다.⁴⁸⁾ 그러므로 寶壤에 관한 龍의 說話는 新
羅에 관계된 것보다는 차라리 高麗의 建國과 관련지워야 할 것 같다.

48) 遺事 卷4, 義解5, 寶壤梨木 條,

“未幾太祖統一三國(後三國)聞師(寶壤)至此創院而居 乃合五岬田東五百結納寺…賜額曰雲門禪寺.”
“初師(寶壤)入唐廻 先止于推火之奉聖寺 適太祖東征…太祖至于山下 問師以易制之述…”

이와 같이 보아 新羅의 崇佛 護國龍은 國家 및 佛敎의 盛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新羅는 佛敎國 즉 佛國淨土이기 때문에 崇佛護國의 法行 福德龍들이 居住하면서 國家를 外護內擁하였던 것인데, 國人 스스로가 正法에 隨順하지 못하고 衆善을 행하지 않았으므로 國家와 佛敎도 沈滯衰退해지고 그로 인해서 龍神도 氣力을 잃고 慳弱 無能한 龍으로 변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新羅의 龍神思想은 당시의 國力 또는 佛法을 反映한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러한 것은 모두가 佛敎國家的인 特殊性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小 結

우리는 이상에서 遺事를 통해서 볼 수 있는 新羅의 佛敎의 龍神思想을 대략 살펴 보았다. 이와 같은 崇佛護國의 龍神思想은 결국 新羅佛敎思想의 必然的인 產物이라고 볼 수가 있다. 新羅야말로 諸佛 講演의 땅으로 佛國淨土라고 自負하였던 그네들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佛敎의 龍神說話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遺事 속에 들어 있는 佛敎의 龍神說話만이라도 우선 整理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상과 같이 試考해 보긴 하였으나, 실은 이 기회에 新羅 龍神에 관한 現存의 野談 傳說을 모두 蒐集하고 또 古來의 우리 歷史에 보이는 一般的인 龍⁴⁹⁾과의 비교 등 좀더 廣範圍하게 總網羅하여 新羅代의 佛敎의 龍神에 관한 加급적 完璧에 가까운 研究를 해보았으면 하는 意欲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本論考의 성격상 그 복잡성을 피하여 餘他龍의 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기회로 미루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보았던 新羅 佛敎龍의 특징과 思想性 및 그 것을 통해서 엿볼 수 있었던 新羅의 佛敎思想 또는 國家的 樣相 등은, 어디까지나 遺事에 있는 資料(龍의 說話)에 의하여 考察되어진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49) 龍의 一般的인 概念 및 傳說 등에 관한 參考로는 權相老 '韓國古代信仰의 一鸞'(佛敎學報 第1輯 pp.81~108). '佛敎'誌 第43號 '龍의 特輯'(p.42~68) 등을 들 수 있다.

(Summary)

The Nāga Thoughts of Silla Buddhism

Kim Yeong-tae

The Samguk Yusa(三國遺事) abounds in legendary stories on Nāga(龍), a fabulous being, of which dominant are the Nāga stories of Silla, especially Buddhistic ones. Through these stories, the paper considers the characteristic feature of the Silla Nāga thoughts.

Conception of Nāga is found rather universally. But its aspects vary from region to region. Silla had its own Nāga before spread of Buddhism. But her contact with Buddhism certainly changed it into Buddhistic one.

The Nāga faiths of Silla can be divided into two sorts. One is based on the faith that Nāga protects the nation, and the other is that it guards the Buddhist doctrine (dharma). But these two faiths are closely related with each other, because Silla people believed that protection of Buddhism leads to the protection of nation and vice versa.

For advancement of the discussion, the writer collects all the materials relating to Nāga from the Samguk Yusa, out of which Nāga stories of Silla are grouped together. And then he compares the Silla Buddhistic Nāga with the Nāgas described in the Buddhist scriptures.

After that, the writer points out that the Silla Nāga thoughts are featured by Silla people's ardent aspiration to protect their country through Buddhism. And this phenomenon may be said to be a natural corollary of the peculiarity of Silla Buddhism which aimed to realize Buddhist ideals on the actual territory of Silla.